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韓·中 盂蘭盆齋의 歷史的 展開과 演戲樣相



高麗大學校 大學院
文化遺產學科 民俗學專攻
崔 攸 榛

2015年 12月

田 耕 旭 教授指導
碩 士 學 位 論 文

韓·中 孟蘭盆齋의 歷史的 展開와 演戲樣相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2月

高麗大學校 大學院
文化遺產學科 民俗學專攻
崔 攸 榛



崔攸榛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
審査를 完了함.

2015年 12月

委員長 전 경 욱 (印)

委員 연 제 영 ()

委員 김 기 형 ()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孟蘭盆齋의 역사	
제1절 孟蘭盆齋의 유래	4
제2절 孟蘭盆齋의 역사적 전개양상	
1. 중국 孟蘭盆齋의 역사적 전개	9
2. 한국 孟蘭盆齋의 역사적 전개	13
제3장 孟蘭盆齋와 연희활동	
제1절 중국 孟蘭盆齋의 연희	37
제2절 한국 孟蘭盆齋의 연희	40
제4장 韓·中 孟蘭盆齋 연희활동의 문화사적 의미	46
제5장 결 론	49
참고문헌	51
ABSTRACT	57



제1장 서론

오늘날 한국의 불교사찰에서 음력 7월 15일마다 설행되는 우란분재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불교 행사이다. 백중, 우란분절 등의 이칭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불교의 주요명절로 꼽힌다. 사찰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큰 사찰에서는 수 천 명의 인파가 운집하여 의식에 참여하기도 한다. 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들의 부모와 조상의 정토왕생을 발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호국영령이나 무주고혼의 천도로 범위가 확대되기도 한다. 재가 설행되는 기간은 7일, 49일 등으로 사찰 별로 차이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란분재 이후 방생법회를 최종 회향으로 하는 등 다양한 설행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이렇듯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한국의 우란분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찰하는 작업은 한국 불교문화의 일모를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간 한국에서 우란분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 국문학, 불교학의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2000년 8월에 열린 한국목련문화학술대회에서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로 집대성되었다¹⁾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학회에서 한국 학자들은 주로 문학적 관점에서 목련구모고사(目連救母故事)와 목련회(目連經)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기존의 우란분재 관련 연구 중에서 우란분재의 역사나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란분재에서 설행된 연희까지 망라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전경욱과 김홍우에 의해 진행되었다. 전경욱은 한국의 전통연희를 고찰하는 맥락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우란분재를 다루며 연희적 요소를 고찰하였다.²⁾ 김홍우는 1930년대 이후 여러 차례 공연된

1) 사재동 편,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 중앙인문사, 2000.

2) 전경욱, 『한국의 전통연희』, 학교재, 2004.



바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목련극을, 중국의 목련희처럼 현대에 연극연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³⁾

한국 우란분재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란분재의 연원과 역사뿐만 아니라 우란분재에서 행해진 각종 연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의 팔관회 수록재 등에서 다양한 연희가 연행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의식들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우란분재에서도 연희가 연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불교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 동전하면서 서역과 중국을 통한 영향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중국의 우란분재는 어떻게 변천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우란분재의 변화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전 및 역사서, 세시기 기록과 근현대시기의 신문, 잡지 기사 및 대본 등을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한국의 우란분재 존재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2014, 2015년에 서울 봉은사와 조계사에서 설행된 우란분재를 현장조사한 내용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음력 7월 15일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盂蘭盆齋, 盂蘭盆節, 盂蘭盆會, 盂蘭盆供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盂蘭盆’이라는 공통된 단어에 불공을 올린다는 의미의 齋, 절기를 나타내는 節, 법회를 의미하는 會, 불공을 의미하는 供이 붙은 불교용어이다. 또한 백중, 백중으로도 불리는데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백중은 百中,⁴⁾ 百衆,⁵⁾ 白衆⁶⁾으로 쓰이는데, 이 중 百中은 민속세시에서, 百衆과 白衆은 불교세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백중은 百種,⁷⁾ 魄縱,⁸⁾ 白踵,⁹⁾ 百終¹⁰⁾ 등의 이칭이 보이는데, 百種은 민속세시에, 魄縱은 불교세시에, 白踵과 百終은 민속세시와 불교세시 모

3) 김홍우, 「우란분재의 연극 연희화 방안」, 『연극교육연구』 1, 1997.

4) 中元和 百種을 합한 말.

5) 대중들이 여러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날.

6) 승려들이 석달 간 수행하고 여러 대중 앞에서 허물을 고백함.

7) 많은 종류의 종자를 갖춤; 백가지 맛, 백가지 꽃과 과일, 백가지 곡식의 씨.

8) 흰백을 놓아줌.

9) 농사를 마무리 짓고 발뒤꿈치를 깨끗이 씻음; 하안거를 마친 승려들이 발을 닦아 발뒤꿈치가 하얗게 됨.

10) 백제가 망한 날, 100일(실제로는 90일) 간의 안거가 끝나는 날.



두에 등장한다. 불교계에서는 ‘우란분재’가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민간에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백중 또는 백중을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조상을 천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망혼일(亡魂日), 구절(鬼節)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도교의 삼원일(三元日) 중 하나인 중원일(中元日)도 많이 사용되는 명칭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민속세시이자 불교명절인 7월 15일의 우란분재에 설행되는 연회의 성격이 불교적 내용이 깊은 점을 고려하여 불교적 관점에서 우란분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제2장 盂蘭盆齋의 역사

제1절 盂蘭盆齋의 유래

우란분은 ‘거꾸로(접두사 *ava*) 매달리다(어근 *lamb*)’라는 뜻을 지닌 산스크리트어 아왈람바나(*avalambana*)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 통설이다.¹¹⁾ 아왈람바나(*avalambana*)는 불교혼성범어에서 울람바나(*ullambana*)로 쓰였고, 이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오람파나(烏藍婆拏)와 우란분(盂蘭盆)이다. 그리고 죄를 짓고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는 조상들의 혼백을 구해 주고 풀어낸다고 의역한 것이 구도현(救倒懸)과 해도현(解倒懸)이다.

우란분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차용된 용어라는 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고대 이란어인 아베스타語(Avestan) ‘우르반(*urvan*)’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¹²⁾ 우르반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뜻이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우르반을 모시는 프라바르디간(*Fravardigan*) 축제가 있다. 이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소나무 가지를 태우는 의식이 있다 이는 소나무가 타는 향기가 조상의 영혼들을 모이게 한다는 믿음에서 조상들이 집으로 돌아와 공양을 받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해진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도 지역의 민간신앙이 반영된다.

또 자자(自恣, *Pravarāṇa*)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¹⁴⁾ 자자(自恣)는 불교에서 3개월 동안 안거 수행 후 마지막 날에 수행승들이 서로 자기가 범

11) 장춘석, 「우란분재의 연원과 전승 양상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20, 2009, 351면.

12) 中村元 外, 『岩波 佛教辭典』 第2版, 岩波書店, 2002, 76면.

13) *Apocryphal Scriptures*,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5, p. 17.

14) 中村元 外, 앞의 책, 76면.



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다. 승려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어 반성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해 달라고 청한다. 우란분재는 3개월 여름 안기 후 승려들이 모여 를 하는 날 열렸다. 이러한 점에서 우란분재의 어원과 를 연결 지었다.

중국 불교에서는 재를 올릴 때 바리[盂], 난초[蘭], 쟁반[盆]을 올린다고 하여 각각의 한자에 의미를 두기도 하고 盆에 의미를 두고 산스크리트어에서 음역한 盂蘭에 盆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혜정(慧淨)의 『우란분경찬술(盂蘭盆經讚述)』에서는 “이름난 향기로운 음식을 盆에 담아 부처님께 올리고 스님들께 시주함으로써 倒懸된 고통을 구제하므로 이름을 ‘盆’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¹⁵⁾ 규봉 종밀(圭峰 宗密)의 불설우란분경소(佛說盂蘭盆經疏) 卷下에서는 “‘우란’은 서역의 말로 이는 ‘도현’이다. 분은 東夏의 음으로 그대로 ‘구제하는 그릇’이다. 만약 지방의 풍습을 따른다면 응당 ‘도현을 구제하는 그릇’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⁶⁾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에 의하면, 우란분재는 석가모니의 십대제자 중 한 사람인 신통제일 목련존자(神通第一 目連尊者)가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목련구모고사(目連救母故事)로부터 유래한 것이다.¹⁷⁾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현생에서 죄를 지어 사후에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육도(六道) 중 아귀도(餓鬼道)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목련존자가 석가모니에게 애원하여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十方大德(十方大德)에게 공양을 올려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했다는 내용이다.

경전은 목련존자의 슬픔으로 시작한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얻고 나서

15) 『大正新脩大藏經(이하 大正藏)』 第85卷, 古逸部, p.540a12.

稱曰盂蘭盆者 卽成食之器 甘□百味□□□方此無加香積名滄悉俎 在於盆內 奉佛施僧 以救倒懸之苦 故曰盆也.

16) 『大正藏』 第39卷, 經疏部, p.506c27.

盂蘭是西域之語 此云倒懸 盆乃東夏之音 仍爲救器 若隨方俗應曰救倒懸盆.

17) 목련존자는 산스크리트어 ‘못갈라야나(Maudgalyāna)’를 음역한 목련(目連) 또는 목건련(目健連)에 존자(尊者)를 붙인 합성어이다. 종종 존자를 더 높여 부르기 위해 크다는 의미의 접두어 마하(maha)를 붙여 마하못갈라야나(Mahāmaudgalyāna)라고 고도 하며 한자로는 대목련(大目連) 또는 대목건련(大目健連)이라고 번역한다.



부모를 제도하여 낳아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깨달은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아귀의 몸으로 태어나 있었다. 목련존자가 발우에 밥을 담아 어머니에게 가서 잡수시게 하였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밥은 불덩어리가 되어 그의 어머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석가모니를 찾아간다. 석가모니는 아귀도에서 아귀를 구하는 방법을 설하는데 이 대목에서 우란분재의 근거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시방 대중 스님들이 自恣하는 칠월십오일에 마땅히 와 현재의 부모, 그리고 모든 액난을 겪고 있는 중생을 위하여 온갖 음식을 갖추고 백 가지 맛의 5종 과실을 갖추어 물을 길러 큰 그릇에 담고 향유로 등불을 밝히고 상을 펴고 臥具로 자리를 깔지니라. 그리고 세상이 다하도록 감미로운 훌륭한 공양그릇을 갖추어 담아서 시방의 모든 대덕스님과 여러 스님들을 공양하여라”¹⁸⁾

18) 『大正藏』第16卷, 經集部, 『佛說盂蘭盆經』, p.779a25.

聞如是 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大目乾連始得六通 欲度父母 報乳哺之恩 卽以道眼觀視世間 見其亡母生餓鬼中 不見飲食 皮骨連立 目連悲哀 卽鉢盛飯 往餉其母 母得鉢飯 便以左手障飯 右手搏飯 食未入口 化成火炭 遂不得食 目連大叫 悲號啼泣 馳還白佛 具陳如此 佛言 汝母罪根深結 非汝一人力所奈何 汝雖孝順 聲動天地 天神 地神 邪魔 外道 道士 四天王神亦不能奈何 當須十方衆僧威神之力乃得解脫 吾今當爲汝說救濟之法 令一切難皆離憂苦 罪障消除 佛告目連 十方衆僧於七月十五日僧自恣時 當爲七世父母及現在父母厄難中者 具飯 百味五果 汲灌盆器 香油錠燭 床敷臥具 盡世甘美以著盆中 供養十方大德衆僧 當此之日 一切聖衆或在山間禪定 或得四道果 或樹下經行 或六通自在 教化聲聞 緣覺 或十地菩薩大人 權現比丘 在大衆中 皆同一心 受鉢和羅飯 具清淨戒聖衆之道 其德汪洋 其有供養此等自恣僧者 現在父母 七世父母 六種親屬得出三途之苦 應時解脫 衣食自然 若復有人父母現在者 福樂百年 若已亡七世父母 生天 自在化生 入天華光 受無量快樂 時佛敕十方衆僧 皆先爲施主家咒願七世父母行禪定意 然後受食 初受益時 先安在佛塔前 衆僧咒願竟 便自受食 爾時目連比丘及此大會大菩薩衆皆大歡喜 而目連悲啼泣聲釋然除滅 是時目連其母卽於是日 得脫一劫餓鬼之苦 爾時目連復白佛言 弟子所生父母 得蒙三寶功德之力 衆僧威神之力故 若未來世一切佛弟子行孝順者 亦應奉此盂蘭盆 救度現在父母 乃至七世父母 爲可爾不 佛言 大善快問 我正欲說 汝今復問 善男子 若有比丘比丘尼 國王太子 王子大臣宰相 三公百官 萬民庶人行孝慈者 皆應爲所生現在父母 過去七世父母 於七月十五日 佛歡喜日 僧自恣日 以百味飲食安盂蘭盆中 施十方自恣僧 乞願便使現在父母壽命百年 無病 無一切苦惱之患 乃至七世父母離餓鬼苦 得生天人中 福樂無極 佛告諸善男子 善女人 是佛弟子修孝順者 應念念中常憶父母 供養乃至七世父母 年年七月十五日 常以孝順慈憶所生父母 乃至七世父母 爲作盂蘭盆 施佛及僧 以報父母長養 慈愛之恩 若一切佛弟子應當奉持是法 爾時目連比丘 四輩弟子 聞佛所說 歡喜奉行。



자자(, Pravarana)는 불교에서 3개월 동안 안거 수행 후 마지막 날에 수행승들이 서로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이다 승려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어 반성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해 달라고 청한다. 경전에서는, 7월 15일에 자자를 한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현재의 부모, 칠세(七世)의 부모, 육종친속(六種親屬, 부, 모, 형, 제, 처, 자)들이 모두 삼악도의 고통스러운 길에서 벗어나고 같은 시간에 응하여 해탈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거를 끝낸 승려들의 참회와 조상들을 위해 안거를 마친 승려들에게 올리는 공양으로 우란분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불설우란분경』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경전을 중국에서 孝의 개념이 추가된 위경(僞經)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효’가 중국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인도에서도 이미 조상에 대한 제사와 조상 구제를 바라는 전통이 있음을 살펴보면 인도에서 연유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리그 베다(Rig Veda)』 10권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죽은 조상들을 관장하는 야마(Yama, 염라), 불의 신 아그니(Agni), 하늘의 신 바루나(Varuna) 등에 대한 찬송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자손이 바치는 공물을 죽은 조상들에게 나눠주기를 간구하는 기원과 신과 조상이 제물을 향수한 대가로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먹을 것을 주며 병과 재앙을 없게 해달라는 소원 등도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마누법전(Manu Smṛti)』 제3장에서도 조상 제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조상 제사의 식순, 조상 제사의 중요성, 조상 제사의 장소와 절차, 조상에게 소원함과 그 결과, 조상 제사에 적합한 때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²⁰⁾

『마하바라타(Mahabharata)』의 자라트카루(Jaratkaru) 고사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선조를 위해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등

19) Stephanie W. Jamison and Joel P. Brereton, *The Rigveda : the earliest religious poetry of India*, vols. 3,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0) 이재숙·이광수 역, 『마누법전』, 한길사, 1999, 123-173면.



장한다. 빠알리어(Pali어) 칸주르(Kandjour) 텍스트에는 고대 인도에서 음식을 그릇에 담아 망자에게 주었던 施餓鬼 습속도 남아있다.²¹⁾

초기불교 기록인 『마하바스투(Mahāvastu, 大事)』에는 교주인 석가모니가 출산 시 죽은 생모 마야부인을 위해, 성도 후 도리천에 가서 33일 동안 설법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²²⁾ 인도 불교에 효라는 중국적인 관념과 동등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뿐 이미 초기 불교경전의 내용에서는 효와 비슷한 맥락을 읽을 수 있다.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 힌두교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천계에 가지 않으면 대부분 조상들의 세계로 가는데, 조상들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바로 설 수 없고 거꾸로 매달려서 있다고 믿는다 바로 서기 위해서는 후손이 제사를 지내야 하며, 이 제사를 통해 조상이 바로 서서 고통을 멈출 수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아왈람바나(avalambana)와 울람바나(ullambana), 救倒懸 및 解倒懸과도 뜻이 상통한다. 외국어를 자국어화 하는데 능했던 중국인들이 ‘우란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외국어의 음차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며, 우란분재 또한 인도나 서역에서 먼저 실행되었고 중국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이를 볼 때 우란분재는 불교가 발생하기 전 인도에서 이미 있었던 조상에 대한 제사와 공양을 올리는 습속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도 불교에서도 실행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우란분재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및 동남아시아로도 전승되었다. 그러면 이들 중 중국과 한국에서 우란분재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21) J. Pryzyluski, “Les rites d’avalambana”, *Melanges chinois et bouddhique*,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vol. 1, pp. 222-225. (장춘석, 위의 글, 351면 재인용)

22) Jones, J. J, *Mahāvastu*, vols. 3, Pali Text Society, 1973.



제2절 盂蘭盆齋의 역사적 전개양상

1. 중국 盂蘭盆齋의 역사적 전개

우란분제가 중국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연대를 밝히기는 힘들지만 대개 6세기 중엽에 널리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현재 전하는 가장 이른 기록은 梁 天監 15년(516)에 편찬된 『경율이상(經律異相)』 권14에 “목련이 어머니를 위해 우란분을 행했다”는 내용이 가장 이른 기록이다.²³⁾ 그리고 『불조통기(佛祖統紀)』 권37에, 양 무제 大同 4년(538)에 “무제가 동태사에 행차하여 우란분제를 베풀었다”는 기사가 전한다.²⁴⁾ 7세기 기록인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7월 15일에는 스님들과 도사와 일반 백성들이 모두 우란분을 만들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기록이 전한다.²⁵⁾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이미 6-7세기경에 우란분제가 큰 행사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승려 엔닌(圓仁)이 지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23) 『大正藏』第53卷, 事彙部, 『經律異相』卷第14, p.73c21.

目連爲母造盆十一 目連始得道 欲度父母報乳哺恩 見其亡母生餓鬼中 不見飲食皮骨相連 目連悲哀 卽鉢盛飯往餉其母 母得鉢飯食未入口化成火炭 目連馳還具陳此事 佛言汝母罪根深結 非汝一人力所奈何 當須衆僧威神之力乃得解脫 可以七月十五日 爲七世父母厄難中者 具飯五果汲罐盆器香油錠燭床褥臥具盡世甘美供養衆僧 其日衆聖六通聲聞緣覺菩薩示現比丘在大衆中 皆同一心受鉢和羅具清淨戒 其有供養此等僧者 七世父母五種親屬 得出三塗應時解脫衣食自然 佛敕衆僧 皆爲施主家七世父母 行禪定意然後食供.

24) 『大正藏』第49卷, 史傳部, 『佛祖統紀』卷第37, p.351a26.

帝幸同泰寺設盂蘭盆齋.

25) 『荊楚歲時記』

七月十五日 僧尼道俗 悉營盆供諸仙按盂蘭盆經云 有七葉功德 並幡花歌鼓果食送之 蓋由此也 經又云 目連見其亡母生餓鬼中 卽以鉢盛飯 往餉其母 食未入口 化成火炭 遂不得食 目連大叫 馳還白佛 佛言汝母罪重 非汝一人所奈何 當須十方衆僧威神之力 至七月十五日 當爲七代父母厄難中者 具百味五果 以著盆中 供養十方大德 佛敕衆僧 皆爲施主 祝願七代父母 行禪定意 然後受食 是時目蓮母 得脫一切餓鬼之苦 目連白佛 未來世佛弟子 行孝順者 亦應奉盂蘭盆供養 佛言大善 故後人因此廣爲華飾 乃至刻木割竹 餉蠟剪綵 模花葉之形 極工妙之巧.



서는 당대(唐代)에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우란분재가 설행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²⁶⁾ 이 순례기에서 당시에 우란분재 행사가 얼마나 성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성 안의 여러 절에서는 7월 15일에 공양이 있었다. 여러 절은 색깔과 모양이 있는 초, 과자, 꽃, 과일 등을 만들어 저마다 기묘함을 다투었다. 상례(常例)대로 모두 법당 앞에 공양을 마련하였다. 온 성의 사람들이 절을 돌며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했으며 행사는 매우 성대하였다. 금년 여러 절에서 마련한 공양은 예년보다 더 좋았다. 조칙을 내려, 여러 절이 불전에 공양하는 꽃과 약 등을 모두 홍당관으로 옮겨와 천존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15일에 천자가 홍당관에 행차하여 백성들을 불러서 그것을 보게 하였다. 백성들은 욕을 하며 말하기를 “부처께 올릴 공양물을 빼앗아 귀신에 제사를 지내니 누가 가서 구경하겠는가?”라 하였다. 천자는 백성들이 오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여러 절에서도 공양물을 빼앗기고 매우 근심하며 두려워하였다.”²⁷⁾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에는 대종(代宗)이 고종(高宗)으로부터 종묘의 칠대 황제를 위하여 우란분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해마다 궁중에서 축제가 열렸다고 전한다. 이로써 당대()의 궁중에서는 우란분재가 대부분 빠지지 않고 치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26) 『入唐求法巡禮行記』 卷第3, 開成5年 7月.

十五日 赴四衆寺主請 共頭陶等 到彼寺齋 齋後入度脫寺 巡禮孟蘭盆會 及入州見龍泉 次入崇福寺巡禮佛殿閣下諸院 皆鋪設張列 光彩映人 供陳珍妙 傾城人盡來巡禮 黃昏自恣 巡禮 十七日 赴節度同十將胡家請 共供主僧義圓 到彼宅齋 諸寺孟蘭盆會 十五日起首 十七日罷

27) 『入唐求法巡禮行記』 卷第4, 會昌4年 7月.

城中諸寺 七月十五日供養 諸寺作花蠟 花餅 假花菓樹等 各競竒妙 常例皆於佛殿前 鋪設供養 傾城巡寺隨喜 甚是盛會 今年諸寺鋪設供養 勝於常年 勅令諸寺佛殿供養花藥等 盡般到與唐觀 祭天尊 十五日 天子駕幸觀裏召百姓令看 百姓罵云 奪佛供養祭鬼神 誰肯觀看 天怪百姓不來 諸寺被奪供養物 恚惶其也

28) 『大正藏』第49卷, 史傳部, 『釋氏稽古略』, p.828c4.

孟蘭盆 丙午大曆元年七月壬午 帝作孟蘭盆會于禁中 設高祖太宗已下七聖位 建巨幡 各以帝號標其上 自太廟迎入內道場 是日立仗百僚於光順門迎拜導從 自是歲以爲常 癸未太廟二室生靈芝 帝賦詩美之 百僚皆和 經云 佛大弟子目犍連尊者神通第一 適母氏命終 墮餓鬼中 目連往見之 白佛救度之 佛命以七月十五日備設齋供 供佛齋僧念讀諸經 母乃脫離餓鬼



송대(宋代)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서는 『목련경(目連經)』의 인쇄와 재를 올리는 단의 모습, 목련회 연극 등을 언급하고 있다.

“7월 15일 며칠 전부터 시장에서는 명기를 파는데…(중략)…중요한 길목이나 변화한 곳에서도 과식, 종생, 화과 따위를 팔며, 존승목련경을 인쇄하여 팔기도 한다. 또 죽간을 쪼개어 3개의 다리를 만들고 3-5척 높이 위에 등잔 모양의 그릇을 얹어 놓은 것을 우란분이라고 하고 걸어두었던 의목과 명전을 그 위에서 태운다. 구사의 악인(樂人)들은 칠석이 지나면 서부터 목련구모(目連救母) 잡극을 행하여 15일에 이르면 그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배나 많다. …(중략)…대회를 베풀고 지전을 태워 전장에서 죽은 이들에게 제를 올리며 고향을 위로하는 도량을 베푼다.”²⁹⁾

원대(元代) 비저(費著)의 세화기려보(歲華紀麗譜)에서는 우란분제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저녁에 대자사(大慈寺)의 설청(設廳)에서 연회를 베푼다. 저물녘에 절의 문루에 올라 금강의 야시를 구경하는데 걸교에 쓰는 물건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 18일 대자사에서 우란분회를 여는데 절의 설청에서 연회를 베풀고 연회가 끝나면 화엄각 아래에서 해산한다.”³⁰⁾

청대(清代) 연경의 세시풍속을 담은 『제경세시기승(帝京歲時紀勝)』에서도 우란분제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29) 『東京夢華錄』 第8卷.

七月十五日中元節 先數日 市井賣冥器靴鞋 襪頭帽子 金犀假帶 五綵衣服 以紙糊架子盤游出賣 潘樓並州東西瓦子亦如七夕 耍鬧處亦賣果食種生花果之類 及印賣尊勝目連經 又以竹竿斲成三脚 高三五尺 上織燈窩之狀 謂之盂蘭盆 掛搭衣服冥錢在上焚之 構肆樂人 自過七夕 便般目連經救母雜劇 直至十五日止 觀者增倍 中元前一日 即賣練葉 享祀時鋪襯桌面 又賣麻穀窠鬼 亦是繫在卓子脚上 乃告祖先秋成之意 又賣雞冠花 謂之洗手花 十五日供養祖先素食 才明即賣部米飯 巡門叫賣 亦告成意也 又賣轉明菜 花花油餅 餛飩 沙撻之類 城外有新墳者 即往拜掃 禁中亦出車馬詣道者院謁墳 本院官給祠部十道設大會 焚錢山 祭軍陣亡歿 設孤魂道場

30) 『歲華紀麗譜』

七月七日 晚宴大慈寺設廳 暮登寺門樓 觀錦江夜市 乞巧之物皆備焉 十八日 大慈寺散盂蘭盆 宴於寺之設廳 宴已 就華嚴閣下散.



“...(전략)...도관과 사원에서 우란회를 설치하니 세상에서 말하는 ‘목련스님이 어머니를 구원한날’이다. 거리마다 대를 높이 쌓아 자리를 만들고 귀왕(鬼王)을 자리에 모신 다음 경문(經文)을 강연하고 염구(焰口)에게 보시를 베풀며 외로운 혼들을 구제한다. 색종이를 풀로 붙여 법선(法船)을 만드니 길이가 70-80자에 이르는 것도 있다. 연못에 가지고 가서 태운 다음 연등에 불을 붙여 강물에 띄우는데 ‘자항보도(慈航普渡: 부처님의 자비를 배에 담아 두루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한다. 청명 때와 같이 도성 성황신의 형상을 마주 들고 나와 길을 다 돌고 나서 여귀(厲鬼)에게 제사를 지낸다. ...(중략)...매년 중원절이 오면 우란도량을 열고 13일부터 15일까지 연등을 강물에 띄우는데 소내감(小內監)들에게 촛불을 켜 하염등을 들고 양면 언덕에 줄지어 서게 하니 그 수가 수천을 헤아린다. 또 유리로 하화등 수천 개를 만들어 운하에 띄우면 물결 따라 위아래로 움직인다. 강 가운데에서 용주(龍舟)를 타고 범악(梵樂)을 연주하고 선송(禪誦)을 읊조리며 대 남면에서 시작하여 다리를 지나 산을 끼고 돌아 정자에 이르렀다가 돌아온다. 운하수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바람은 서늘하며 가을 달빛은 매우 맑고 깨끗하니 지금까지도 ‘불 만한 행사였다’라고 전해온다. ...(중략)...대낮 같은 천가의 경단에서 마음껏 구경하며 노는데 투등회(鬪燈會)라 하며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간다.”³¹⁾

경전의 내용에서는 부모와 7대 선조까지를 위한 것으로 우란분재의 천도 대상을 명시하는 등 우란분재의 목적 실행형태 등 우란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후대의 세시기록에서는 전장에서 죽은 이들의 고향을 위로하는 등 천도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확대 변모되어 수륙재(水陸齋)의 실행목적과 변별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1) 『帝京歲時紀勝』

中元祭掃 尤勝清明 綠樹陰濃 青禾暢茂 蟬鳴鳥語 興助人游 庵觀寺院 設盂蘭會 傳爲目蓮僧救母日也 街巷搭苫高台 鬼王棚座 看演經文 施放焰口 以濟孤魂 錦紙扎糊法船 長至七八十尺者 臨池焚化 點燃河燈 謂以慈航普渡 如清明儀 昇請都城隍像出巡 祭厲鬼 聞世祖朝 曾召戒衲木陳玉林居萬善殿 每歲中元建盂蘭道場 自十三日至十五日放河燈 使小內監持荷葉燃燭其中 羅列兩岸 以數千計 又用琉璃作荷花燈數千盞 隨波上下 中流駕龍舟 奏梵樂 作禪誦 自瀛台南過金鰲玉棟橋 繞萬歲山至五龍亭而回 河漢微涼 秋蟾正潔 至今傳爲勝事 都中小兒亦於是夕執長柄荷葉 燃燭於內 青光熒熒 如磷火然 又以青蒿縛香燭數百 燃爲星星燈 鏤瓜皮 掏蓮蓬 俱可爲燈 各具一質 結伴呼群 遨遊於天街經壇燈月之下 名門燈會 更盡乃歸.



이처럼 중국에서는 6세기 이래로 우란분제가 사찰, 궁중, 민간에서 열리고 청대에 이르러서는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전을 인쇄하고 파는 행위,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극을 상연한 사실 등은 불교적 행사 우란분제가 재를 지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경전을 강하고 대중들에게 연회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축제적 성격을 지녔다.

2. 한국 盂蘭盆齋의 역사적 전개

한국에서는 고려 이전의 우란분재에 관한 기록이 현재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스이코 천황[推古天皇] 14년, 교고쿠 천황[齊明天皇] 3년과 5년에 우란분재를 설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³²⁾ 한국에서 각각 신라 진평왕(眞平王) 28년(606)과 무열왕(武烈王) 4년(657)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당시 일본에 불교가 전파된 경로가 고구려, 백제, 신라인 점을 미루어, 일본사서에 기록된 불교 행사가 있었다면 한국에서도 우란분재가 설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이미 진흥왕(眞興王) 12년(551)에 팔관회(八關會)를 개설하고, 진흥왕(眞興王) 33년(572)에는 7일간 外寺에서 전물장병을 위한 위령제로 팔관회가 개최되었음을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³³⁾ 민속적 범위를 넘어 불교적 성격을 지닌 팔관회가 이 시기에 설행되고 있었음을 볼 때, 우란분재도 6세기 중엽에는 설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한국에 불교가 전파된 삼국시대에는 많은 불교의식 중 불경 강론이

32)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14年.

自是年初每寺 四月八日 七月十五日設齋.

『日本書紀』卷26, 齊明天皇3年.

作須彌山像於飛鳥寺西 且設盂蘭盆會.

『日本書紀』卷26, 齊明天皇5年.

詔群臣 於京內諸寺勸講盂蘭盆經 使報七世父母.

33)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冬十月二十日爲戰死士卒設八關筵會於外寺七日罷.



대세를 보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 본기 진평왕(眞平王) 35년 (613) 7월조에는 “7월에 수나라 사신이 황룡사에 와서 백고좌(百高座)를 마련하고 圓光 등의 법사를 청하여 불경을 강설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³⁴⁾ 7월이면 칠석이나 7월 15일 즈음 왕을 중심으로 법회를 열어 신라와 수나라 사이에 정치 문화의 교류와 친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⁵⁾ 이러한 당대의 풍속을 고려한다면 삼국시대에 이미 우란분제가 설행되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의 기록도 우란분제가 적어도 신라, 고려 시대의 풍속이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신라의 오랜 풍속에 王女가 6부 여자들을 거느리고 7월 16일부터 大部 뜰에 아침 일찍 모여 길쌈하여 8월 보름에 그 공의 많고 적음을 보아 진 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 하면서 서로 가무를 하며 온갖 놀이를 하다가 파했다. 그래서 7월 보름을 百種節이라고 하고 8월 보름을 嘉排日이라고 한다. 후자는 말하기를 신라와 고려 때는 불교를 숭상하여 盂蘭盆 때 공양하는 옛 풍속을 모방하여 7월 15일 중원일에 百種, 즉 온갖 꽃과 과일을 갖추어 공양하고 복을 빌었으므로 백종절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두 가지 설 중에 누가 옳은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은 오로지 그 이름만 남았을 뿐 행사는 없다 그러나 절에서는 이 날 재를 준비하여 조상의 혼 앞에 천신하고, 시정 백성들은 서로 모여 마시며 즐기니 대개 위의 옛 풍속을 따른 것이다 ³⁶⁾

한국에서의 우란분제 거행에 대해 현재 전하는 가장 이른 기록은 『고려

34)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秋七月隋使王世儀至皇龍寺設百高座邀圓光等法師說經.

35) 노태조, 「목련전과 심청전의 대비 고찰」, 『우란분제와 목련전승의 문화사』, 중앙인문사, 2000, 370-371면.

36) 『洙陽歲時記』

世傳新羅故俗 王女率六部女子 自七月既望早集大部庭績麻 至八月十五日 考功多少 負者置酒食以謝勝者 相與歌舞作百戲而罷 故以七月望日爲百種節 八月望日爲嘉排日 或曰羅麗崇佛傲盂蘭盆供遺俗 以中元日具百種花果供養祈福 故以名其日二說未詳孰是今則惟存其名而並無其事 然僧家以是日設齋薦先魂 市井小民相聚燕飲以爲樂 盖沿舊習也.



사(高麗史)』 世家 12, 예종(睿宗) 元年(1106) 7월 조이다.

“계묘일에 장령전(長齡殿)에서 우란분재를 올려 숙종의 명복을 빌고 갑진일에 또 명망있는 중을 불러서 목련경을 강의했다.”³⁷⁾

의천(義天, 1055-1101)의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에 실려 있는 기록을 통해 1106년 이전 고려 사회에서 행해진 우란분재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우란분재일에 팔에 불을 태워 발원하는 疏

삼가 생각하건대, 『범망경』에 법을 중히 여기는 규범을 드리워 팔을 태우는 것을 먼저 가르치셨고, 『능엄경』에 빛을 갠 모범을 말씀하시어 몸을 태우는 것을 간곡히 보이셨으니, 하물며 부모의 노고에 어찌 정성으로 간절한 슬픔을 다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무개는 다행히 천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든 법을 만났고, 또한 일승의 업을 오로지 하였으며 오묘한 도가 사람에게 있다 하여 비록 마음에 새긴 지 오래이나 그옥한 진리의 말은 조짐이 끊기었으니, 어찌 얼굴을 담에 대고 도를 알지 못한 채 오래도록 지내겠습니까? 여러 번 송나라에 유학 하여 도를 구하고자 했지만 매번 장애가 있어 죄업의 허물이 깊이 얽혀 있음을 깊이 탄식하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함을 슬퍼할 따름이었습니다. 만일 불보살의 돌보심과 가호가 아니면 어찌 법을 구해 오려는 저의 평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으며 공덕을 본받는 일을 안으로 베풀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지극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석가 세존을 비롯한 여러 성스런 대중들께서는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가련한 마음으로 한 줄기 향을 팔에 태우는 작은 정성을 거두어 주소서 오늘의 좋은 인연을 의지해서 몸소 일백 城을 두루 돌며 다른 날 스승을 기이하게 만났던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본받게 하소서. 바람이 그치면 다시 부채질을 하듯, 법 비(法雨)가 그쳤지만 다시 비를 내려 圓宗을 길이 퍼지게 하시고, 이로써 마침내 온전한 효도를 이루게 하소서.”³⁸⁾

37)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元年7月.

癸卯 設盂蘭盆齋于長齡殿, 以薦肅宗冥祐 甲辰 又召名僧講目蓮經

38) 『大覺國師文集』 卷第1.

‘盂蘭盆日燒臂發願疏’, 右伏以 梵網垂重法之規 先教燒臂 楞嚴談酬債之範 曲示蒸身 矧惟父母之劬勞 盍罄精神之哀懇 某運逢千載 業檀一乘 妙道在人 雖剝心而斯久 玄言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이 글은 의천이 宋으로 유학을 가기로 성사되었던 1085년 4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천은 우란분재일에 발원을 하면서, 유학의지와 원종(圓宗, 화엄종)의 흥포, 孝의 성취를 언급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팔에 불을 태우는 소비(燒臂) 공양이 우란분재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집에 실린 다른 글에서는 의천이 우란분경을 강설하면서 남긴 글이 전한다.

“우란분경을 강설하면서

큰 자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고 큰 효도는 친애하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남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큰 자비가 아니며 현재의 부모만 친애하고 옛날에 친애했던 부모를 친애하지 않으면 큰 효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섯가지 형벌은 3천 가지나 되지만 불효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육도의 행문이 8만 가지나 있지만 효를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러므로 불교의 문이 五時에 두루하고 유교의 전적이 六經에 통하여 크고 작음을 그 가운데 싸안고 높고 낮음을 그 속에 일관하며, 비록 가르침을 베푸는 형식에는 다름이 있으나 효도를 숭상하는 데에는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本師이신 대각 석존께서는 처음 正覺을 이루었을 적에 宿世에 근기가 성숙한 큰 보살들을 위하여 처음 14일 동안 화엄대교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하시고 바로 범망보살대계를 설하시며 이르시기를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하고 지극한 법에 효순해야 하는 효를 곧 戒라 한다” 하시고 열 가지 무거운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를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품의 큰 계이며 효의 극진함이다 만일 중생의 소질과 근기의 마땅함에 따라 순응하고 말세에 빛을 띠려면 이 우란분경이 참으로 중요할 것이다. 목련존자로 인하여 이 경을 설하는 인연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선양하셨으니, 自恣하는 승려들을 청해 수고한 원혜를 갚고자 많은 음식을 공양함에 十地 보살이 이에 응하였으니 그

絶朕 奈牆面以居多 屢欲遊參 每看障礙 嘆罪愆之深結 悲教法之下衰 若匪冥加 豈諸素願 敢效功於內施 竊扣應於克誠 伏乞本師世尊爲首 多諸聖衆等 不捨慈悲 哀憐納受 願使臂燒一炷 賴今日之良因 躬歷百城 遂他年之奇遇 眞風息而復扇 法雨收而更霧 永播圓宗 終成全孝 某歸命激切之至。



덕이 크고 넓어서 선정과 지혜를 닦아 두 가지 장애를 없앤 이익이 넓고
큰지라 가히 미혹을 깨뜨리는 앞의 진영이요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관문
이라 할 것이다 (후략)³⁹⁾

의천은 큰 자비와 큰 효도를 언급하면서 큰 효는 과거세의 부모까지 친
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천의 이러한 설명은 우란분경에 실려 있
는 내용을 부연한 것이다 또한 유교 못지않게 불교에서도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의천의 비중을 감안할
때 우란분경을 중시했던 의천의 태도는 고려의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도 보편적 일식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고려사』에서는 우란분재 설행에 대한 기록이 다수 발견되고 있
다.

“무오일에 우란분 도량을 長齡殿에서 베풀었다.”⁴⁰⁾

“임인일에 우란분재를 奉元殿에서 베풀었다.”⁴¹⁾

“계미일에 神孝寺에 행차하여 우란재를 베풀었다.”⁴²⁾

“신사일에 왕이 공주와 함께 廣明寺에 행차하여 우란분재를 베풀었다.”⁴³⁾

39) 『大覺國師文集』 卷第1.

‘講蘭盆經發辭，大慈無不愛 大孝無不親 愛我之愛 不愛彼之所愛 非大慈也 親今之親 不親昔之所親 非大孝也 然以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六度之歸八萬 而福莫大於 行孝 故得釋門遍於五時 儒典通乎六籍 包羅大小 統貫尊卑 雖設教有殊 而崇孝無別 故 我本師 大覺世尊 初成正覺 爲宿世根熟 大菩薩衆 於第二七日 轉花嚴大教根法輪 便說 梵網 菩薩大戒云 孝順父母 師僧三寶 孝順至道之法孝名爲戒 乃至廣說 十重四十八輕 者 此是稱性大戒 孝之極也 苦乃曲順機宜 流光末葉者 今此蘭盆 實爲其要 因目連而起 發故 大覺以宣揚 請自恣僧報勛勞德 供饌具而十地應 其德汪洋 定慧修而二障除 其利 浩博 可謂破迷前陣 入道要門 所言佛說孟蘭盆經者 三覺圓滿 稱之爲佛 一音演暢名之 爲說 孟蘭是西域之語 此云 倒懸盆 乃東夏之音 仍爲救器 經則爲常爲法 是貫是攝 常 則道軌百王 法乃德模千葉 貫則集斯妙理 攝又御彼庸生 故言佛說孟蘭盆經也 其他隨文 發義 次下當知.

40) 『高麗史』 卷 13 世家 13, 睿宗 4年 7月.

戊午 設孟蘭盆道場於長齡殿.

41) 『高麗史』 卷 18 世家 18, 毅宗 7年 7月.

壬寅 設孟蘭盆齋於奉元殿.

42) 『高麗史』 卷 30 世家 30, 忠烈王 11年 7月.

癸未 幸神孝寺 設孟蘭齋.

43) 『高麗史』 卷 31 世家 31, 忠烈王 22年 7月.



기해일에 왕이 공주와 더불어 神孝寺에 행차하여 우란분재를 베풀었다.”⁴⁴⁾

“계사일에 우란분재를 內殿에서 베풀었다.”⁴⁵⁾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따르면 장령전(長齡殿)은 건덕전 구역 안의 동면에 위치하였다.⁴⁶⁾ 건덕전 구역에 속한 건물로, 인종 16년 5월에 봉원전(奉元殿)으로 개칭된다.⁴⁷⁾ 따라서 『고려사』에서 우란분재를 행했다고 전하는 7회의 기록 중 3회가 이 전각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장령전(봉원전)은 우란분재 외에도 기우행사, 화엄·범화 설법, 飯僧 등의 불교 행사 뿐만 아니라 유교 경전의 강독, 도교의 초례, 활쏘기 사열, 연회, 시 짓기 등을 행하였던 기록이 전한다.⁴⁸⁾

공민왕 대에 우란분재를 행했다는 기록에는 내전(內殿)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전은 대개 궁성에서도 안면의 공간을 가리키나 드물게는 대궐 내의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 명칭이 언급되지 않고 내전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⁴⁹⁾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주로 궁궐 내에서 우란분재를 베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원 간섭기에는 신호사(神孝寺)와 광명사(廣明寺) 등 궁궐 밖 사찰에서 설행되기도 했다. 신호사는 충혜왕의 진전이 있는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궁궐 밖 사찰에서 행한 기록에서 공통점이 드러난다. 그것은 왕실의 진전을 모신 사찰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려사의 기록은 왕실 주도의 우란분재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辛巳 王與公主 幸廣明寺 設盂蘭盆齋.

44) 『高麗史』 卷 33 世家 33, 忠宣王 卽位年 7月.

己亥 王與公主 幸神孝寺 設盂蘭盆齋.

45) 『高麗史』 卷 39 世家 39, 恭愍王 5年 7月.

癸巳 設盂蘭盆齋于內殿.

46)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六 宮殿二

長齡殿 在乾德之東紫門內 其制三間 雖華煥不逮萬齡 而規模過之 每中朝使者欲行 前期必有先書 介紹至 則於此受之 賈人之至境 遣官迎勞 舍館定 然後於長齡受其獻 計所直 以方物數倍償之.

47) 김창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72면.

48) 김창현, 위의 책, 72-76면.

49) 김창현, 위의 책, 100-101면.



광명사(廣明寺)는 황성의 서북면, 송악산 남면 기슭에 위치하였는데, 태조 왕건 때 창건되었다. 광명사가 들어선 지역은 왕건의 선대 강충과 왕건의 조부 작제건이 거처했던 고려왕실의 신성공간이며 특히 이 곳 우물은 왕건의 조모인 용녀가 서해의 용궁을 드나들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왕건의 부친 용건은 그 남면으로 거처를 옮겨 왕건을 낳았는데, 도선이 정해준 곳으로 이곳에는 훗날 장령전(봉원전)이 들어선다. 왕건은 왕위에 오른 후 강충, 작제건, 용건의 거처지를 기념해 절을 건립하고 광명사라 하였다.⁵⁰⁾ 선왕의 조상 거처지에 지은 절, 선왕이 태어난 곳에 지은 전각에서 우란분재를 거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종(文宗) 10년(1056)의 조서 내용에 의하면, 예종대 이전부터 우란분재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한 것은 청정으로 근본을 삼아 온갖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탐욕스런 생각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지금은 나라의 역사를 기피하는 무리들이 불교에 이름을 걸어놓고 재부를 축적하여 사생활에 마음을 팔고 있다. 그래서 농업과 축산으로 직업을 삼고 상업이 예사로 되어 있다. 밖에 나가서는 계율의 조문을 위반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청정의 결심이 없으며, 몸에 입는 장삼은 술독 덮개로 굴러 떨어지고, 불경을 강독하는 장소는 채소밭으로 변했다.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물건을 매매하고, 잡인들과 어울려서 술주정을 하며, 기생들과 시끄럽게 섞여서 우란분을 모독하고 있다. 속인의 관을 쓰고 속인의 옷을 입으며, 사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서 북장구와 깃발을 갖추어 노래하고 악기를 불며 촌락과 시정으로 다니면서 사람들과 난투하여 피투성이가 된다.”⁵¹⁾

『고려사』의 이 조서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의 우란분재에서 여러 연희

50)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171-172면.

51) 『高麗史』 卷 7 世家7, 文宗 10年 9月.

釋迦闡教 清淨爲先 遠離垢陋 斷除貪欲 今有避役之徒 托號沙門 殖貨營生 耕畜爲業 估販爲風 進違戒律之文 退無清淨之約 袒肩之袍 任爲酒盃之覆 講唄之場 割爲葱蒜之疇 通商買賣 結客醉娛 喧雜花院 穢臭蘭盆 冠俗之冠 服俗之服 憑托修營寺院 以備旗鼓歌吹 出入閭閻 搗揅市井 與人相鬪 以致血傷 朕庶使區分善惡 肅舉紀綱 宜令沙汰中外寺院 其精修戒行者 悉令安住 犯者以法論



들이 연행되었고 절에 속한 연희자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교에 속한 무리이면서도 장사를 하고 기생들과 뒤섞여 놀며, 속인의 복장을 하고 절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공연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에서 우란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경옥은 이 자료를 들어 고려시대의 승광대를 재승(才僧)의 모습으로 보았다.⁵²⁾ 그런데 이 기록에서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물건을 매매하고, 잡인들과 어울려서 술주정을 하며, 기생들과 시끄럽게 섞여서 우란분을 모독하고 있다”는 말을 통해, 재승들이 우란분재에서 기생들과 함께 공연하면서 난잡한 짓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불경을 강독했다는 것은 『목련경』으로 보인다.

사료와 세시기에 등장하는 『목련경』 강독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자. 고려 충목왕 3-4년(1347-8)에 편찬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7월 15일은 여러 부처님이 해하(解夏, 여름 안거를 마침)하는 날이라 경수사(慶壽寺)에서 여러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란분재를 한다기에, 나도 사람들을 따라서 구경갔다. 그곳의 단주(壇主)는 고려의 스님이었는데, 새파랗게 깎은 둥근 머리에 새하얀 얼굴을 가졌고 총명과 지혜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창하고 읊는 소리가 여러 사람들을 압도했고, 경률론(經律論) 삼장(三藏)에 모두 통달해 있는 정말로 덕행이 뛰어난 스님이었다. 『목련존자구모경(目連尊者救母經)』을 설하는데, 승니도속(僧尼道俗)과 선남선녀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나 모든 사람들이 두 다리를 꼬고 앉아 두 손을 들어 합장하고 귀를 기울이어 소리를 듣고 있었다.”⁵³⁾

이와 같이 고려의 승려가 원에 초청되어 『목련경』을 강설했다는 『박

52) 전경옥, 앞의 책, 195면.

53) 『朴通事諺解』

這七月十五日是諸佛解夏之日 慶壽寺裏爲諸亡靈 做孟蘭盆齋 我也隨喜去來 那壇主是高麗師傅 靑旋旋圓頂 白淨淨顏面 聰明智慧過人 唱念聲音壓衆 經律論皆通 眞是一箇有德行的和尚 說目連尊者救母經 僧尼道俗善男信女 不知其數 人人盡盤雙足 箇箇擎拳合掌 側耳聽聲.



통사언해』의 기록에서, 우란분재에서 단주[法主]가 『목련경』을 창하고 읊는 형식으로 송경하면 참석한 재자들이 가부좌에 합장하고 듣는 형식을 보여준다

한편 문인들의 기록들에서도 우란분재에 대한 언급이 다수 등장한다. 민사평(閔思平, 1295-1359)의 『급암시집(及菴詩集)』에서는 우란분재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처음 부처님의 위촉을 받을 적에
교화있는 백성들이 슬퍼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란(孟蘭)의 범공양을 베풀려 하오니
재를 봉행함이 진실로 절실하다면
풍요로움이 더욱 해야될 만합니다.
보잘것없는 자질로 머리 숙여 따르며
외람되어 크나큰 사업을 세습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을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함은
원래 혼자 지혜로 감당할 바가 아니며
부처에게 귀의하고 승가에 돌아가되
감히 앞서 근친 때의 물려주신 교훈을 소홀히 하리까.
이에 자자일(自恣日)을 당하게 되면
중한 과제가 모범으로 펼쳐지기에
여러 방향에서 堂 안에 구름처럼 모이고
온갖 음식은동이 위에 별 같이 나열되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자혜로운 물결에 도움을 청하니
지혜의 햇불 나뉘어 빛이 납니다
엄숙한 모습은 빨리 윤회를 벗어나
평범함을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에 드시고
모후(母后)께서는 영원히 장애(障礙)와 이별하여
여자가 변화하여 남자가 되시어
신령함을 머금고 편안함을 일으켜
침체된 혼백을 모두 구제 하소서 54)

54) 閔思平, 「康安殿孟蘭齋文」, 『及菴詩集』卷之五.

初傳佛囑 曾聞採菽之哀號 欲報親恩 爲設孟蘭之妙供 奉行苟切 饒益可量 頰循眇眇之



이 시에서 우란분재가 진행되는 장소가 당중(堂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의 제목이 ‘강안전우란분재문’인 점을 고려하면 당중은 강안전으로 보인다. 민사평의 생몰연대를 고려할 때 13세기 궁궐에서 온갖 음식을 그릇을 담아 별처럼 나열하고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란분재를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설행 목적에서는 특정인과 떠도는 혼백을 구제하고자 함에 두고 있다.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의 문집에서 우란분재를 언급한 기록이 2회 발견된다. 우란분이 서역에서 나왔으며 어의가 거꾸로 매단다는 뜻인 것을 밝히며 당시에도 우란분의 연원과 어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란분재가 관음신앙에 바탕을 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절집마다 모두 우란분회를 베풀으니
신도들은 떼 지어 왁자지껄 담소하는데
 난 홀로 연화좌 위에 관세음보살을 마주하다
 문득 광제사로부터 범화를 빌려왔네
 뜬구름은 바람 따라 광대히 움직이고
 가랑비는 햇살을 띠고 실실 내리누나
 지난 허물 깨끗이 씻어 매우 청정하거니
 어찌 고통 참고 산수와 짝할 것 있으랴”⁵⁵⁾

우란분의 범회는 서역에서 나왔나니
진단의 번역은 해도현이라 하나니라
 온 나라가 뒤질세라 분주히 치달리는 때에
 아직도 이 몸은 여전히 떠돌이라 부끄럽네
 두 병에 꽃힌 꽃은 참으로 불품없다마는
 한 가닥 향 연기는 대천 세계에 퍼지리라
 다행히 조사당에 천신할 뉘살을 얻어 와서

資 叨龔丕丕之緒 利吾家利吾國 元非獨智之能堪 歸於佛歸於僧 敢忽前寧之貽訓 爰當
 自恣 式展熏科 諸方雲會於堂中 百味星羅於盆上 伏願慈波借潤 慧炬分暉 嚴伐速脫於
 輪回 超凡入聖 母后永離於障礙 轉女成男 含靈學安 滯魄咸濟.

55) 李穡, 「朝雨」, 『牧隱詩藁』卷之二十四.

孟蘭盆會通僧家 檀越成群笑語譁 獨對圓通躡蓮葉 却從廣濟借荷花 浮雲浩浩隨風轉 小
 雨絲絲帶日斜 滌盡往愆清淨甚 何須忍苦伴煙霞.



나도 한낮에 백의선에게 질하고 울렸노라 56)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한 불교적 성격의 우란분재는 성리학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유교국가의 조선에도 지속적으로 성행한다 이는 우란분재가 민중의 생활과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시대를 초월한 효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57)

조선시대의 송유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조(太祖) 7년 7월에 흥천사(興天寺)⁵⁸⁾에서 우란분재가 행해졌다.⁵⁹⁾ 조선시대 역사서에서 우란분재와 관련한 기록이 많이 전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그만큼 보편화, 일반화된 세시풍속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 세종대 실록의 기록에서 민간에 일반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의 풍속이 7월 15일은 절에 가서 혼을 불러 제사했는데, 이날 무례한 승도들이 도성에 들어와서 거리 골목에 기를 세우고 쟁과 북을 치며 탁자를 설치하여 찬구를 늘어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 백종(百種), 시식(施食)이라고 이름했다. 사녀(士女)들이 수없이 모여들어 곡식과 배를 시사(施捨)하되 남에게 뒤질세라 두려워하고, 경사(卿士)의 집에서도 하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승정원에 이르기를, ‘승도들이 방자한 것이 이렇게 극도에 이른 것을 나도 들었는데, 경들은 어

56) 李穡, 「驪興吟」, 『牧隱詩藁』 卷之三十五.

孟蘭盆法出西天 震旦翻爲解倒懸 舉國奔馳唯恐後 愧吾流落尙如前 兩瓶花蕊眞無幾 一稊香煙徧大千 幸得祖堂新粳米 日中拜獻白衣仙.

57) 전경옥, 앞의 책, 281면.

58) 흥천사(興天寺)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에서 언급되는데, 우란분재가 있었던 7월과 다음 달인 8월 기록만 보더라도 태조가 여러 차례 행차하였다.

“임금이 흥천사(興天寺)에 거둥하여 부도탑(浮屠塔)을 구경하였다.” 上幸興天寺, 觀浮屠塔. 『朝鮮王朝實錄』 太祖 卷14, 7年 7月 27日; “임금이 흥천사에 거둥하여 신덕왕후의 친회(薦會: 薦新하는 齋會)를 관람하였다.” 幸興天寺 觀神德王后薦會 『朝鮮王朝實錄』 太祖 卷14, 7年 8月 9日;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대상재(大祥齋)를 흥천사(興天寺)에서 베풀었는데, 도당(都堂)에서는 흥복사(興福寺)에서 별도로 행하였다.” 設神德王后大祥齋於興天寺 都堂別行于興福寺 朝鮮王朝實錄 太祖 卷14, 7年 8月 13日.

59) 『朝鮮王朝實錄』 太祖 卷14, 7年 7月 14日.



째서 아뢰지 않았는가'하고 또 사헌부를 불러 '왜 금하지 않았느냐'하여 힐책하기를 마지 않았다. 이때에 장령(掌令) 민건(閔騫)은 중들이 방울을 흔들며 염불을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들은 체하고 지나니 사람들이 이를 크게 비난했다 60)

거리에 기를 세우고 찬구를 늘어놓으며, 쟁과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염불하고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과 설행장소가 길거리는 물론 경사의 집에서도 설행되는 모습에서, 민간에서는 고려시대보다 더 성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민간에서 우란분제가 성행했던 사실은 『경도잡지(京都雜志)』,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 세시기에서도 확인된다.

“고려 때는 불교를 숭상하여 우란분회를 열었는데 지금 풍속은 단지 맘껏 마시고 배불리 먹을 뿐이다.”⁶¹⁾

“고려시대에는 부처를 숭상하여 해마다 이 날이면 우란분회를 열었는데 지금 재(齋)를 여는 풍속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이 날로 亡魂日을 삼는데 대개 향간의 백성들이 이 날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 등을 차려놓고 죽은 아버지의 혼을 불러 모신다. 東岳 李安訥의 시에 “시장에 채소와 과일이 많은 것을 보니 도성 사람들이 오늘 도처에서 죽은 혼을 위해 제사 지내겠구나.”라고 하였다. 충청도 풍속에 이 날 노소를 막론하고 저자에 나아가 마시고 먹는 것을 즐긴다. 또 씨름도 한다.”⁶²⁾

60) 『朝鮮王朝實錄』 世宗 27年 7月.

國俗以七月十五日 就寺招魂以祠 是日無賴僧徒入都城 於街巷豎幡幢 擊錚鼓 設卓陳饌 唱死人名 號曰百種施食 士女盆集 施捨粟布 惟恐不及 卿士之家 亦有爲者 上聞之, 大怒 謂承政院曰 僧徒縱恣 以至此極 予亦聞之 卿等何不以啓 又召司憲府曰 何不禁耶 詰責不已 時掌令閔騫見僧搖鈴梵唱 似若不聞而行 人多譏之.

61) 「中元」, 『京都雜志』

俗稱百種節 都人盛設饌登山歌舞爲樂 按孟蘭盆經目連比丘七月十五日具百味五果以著盆中供養十方大德 今所云百種卽百味之謂也 高麗崇佛爲孟蘭盆會 今俗只醉飽而已 或云是日舊俗陳列百穀之種故曰百種 無稽之說也.

62) 「中元」, 『東國歲時記』

十五日東俗稱百種日僧徒設齋供佛爲大名節 按荊楚歲時記中元日僧尼道俗悉營盆供諸寺院 又按孟蘭盆經目連比丘五味百果以著盆中供養十方大德 今所云百種日似指百果也 高麗崇佛是日每爲孟蘭盆會 今俗設齋是也 國俗以中元爲亡魂日 蓋以閭閻小民是几月夕備



조선시대 세시기의 내용에서 고려시대의 우란분재의 모습과는 달리 먹고 마시는 세시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는 조선시대의 우란분재가 일반 서민들, 특히 부녀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행사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전의 내용과 같이 공양물을 올리고 부모의 혼을 불러 제사를 지냈으며, 하안거를 마치는 날 승려들을 대접하는 승보공양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란분재에서 범패를 불렀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민간에서는 우란분재가 중요한 불교행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 15일은 속칭 백종(百種)이라 하여 승가(僧家)에서 1백 가지 꽃 열매를 모아 우란분(盂蘭盆)을 배풀었는데, 서울에 있는 여승(女僧)의 암자(庵子)에서 더욱 심하였으므로 부녀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곡식을 바치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 제사지냈다. 왕왕 승려들이 탁자(卓子)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엄금하여 그 풍속이 없어지게 되었다.”⁶³⁾

“4월 8일의 연등회와 7월 보름의 우란분(盂蘭盆)과 12월 8일의 욕불(浴佛 불상을 물로 씻는 관불(灌佛)) 때에는 다투어 다과와 떡 같은 것을 시주하여 부처에게 공양하고 승려를 대접하는데, 승려들은 범패(梵唄)를 부르고 곱게 차려입은 부녀자들은 산골짜기에 모여들어 추잡한 소문이 밖에까지 들리는 일이 꽤 있었으며, 나이 어린 여승들은 아이를 낳고 도망가는 자가 많았다.”⁶⁴⁾

『용재총화』 권2의 내용에서 대략 1400년대에 조상을 위한 제사의 풍속이 없어지게 된 것으로 읽을 수 있으나, 권8의 내용으로 볼 때 민간에서의

蔬果酒飯招其亡親之魂也 李東岳安訥有詩云 記得市塵蔬果賤 都人隨處薦亡魂 湖西俗以十五日老少出市飲食爲樂 又爲角力之戲.

63) 成俔, 『慵齋叢話』 卷之二.

七月十五日俗呼爲百種 僧家聚百種花果 設盂蘭盆 京中尼社尤甚 婦女盆集 納米穀唱亡親之靈而祭之 往往僧人設卓於街路而爲之 今則痛禁而小戢.

64) 成俔, 『慵齋叢話』 卷之八.

如四月八日燃燈七月望日盂蘭盆臘月八日浴佛 爭施茶果餅物 供佛而邀僧 僧徒作唄 紅粧繡裳 盆集山谷 頗有醜聲聞於外 年少尼輩 多有產兒逃亡者.



우란분재는 여전히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문집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우란분재에 대해 언급한 사례가 여럿 보인다. 우란분재를 언급한 대부분의 문인들의 기록들은, 재에 참여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의 관찰자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두 수의 시에서 우란분을 언급하였는데, 모두 성리학적 시각에서 우란분으로 불공을 올리는 것에 거리를 두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한 해의 중원절을 만났네 그려
덧없는 인생 늙어가는 걸 어찌하랴
적벽 놀이 즐긴 입술년 몇 번이나 지났던가
다시는 늙은 동과 같은 이를 볼 수가 없네

연못과 관사에 잠시 아침 비가 지나고 나자
오동나무 고요한 그늘이 가을 기운을 띠네
우란으로 공불하는 건 나의 일이 아니기에
기녀와 마주 앉아서 좋은 술이나 마신다오⁶⁵⁾

비 개고 막 서늘해져 가을 해를 보내어라
일 년의 계절 차서가 몹시도 아득하구려
중원절 놀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더니
천고의 풍류는 역시 적벽의 놀이였었네

사물 보고 감회 일으키니 자못 상심되어라
우란으로 공불한다는 게 가장 황당하구려
지관이 내려오는 걸 어떤 사람이 보았는고
내가 그를 만나서 술 한잔을 대접하고 싶네⁶⁶⁾

65) 徐居正, 「中元日有吟 寄子固」, 『四佳詩集』 卷之四十六 第二十二.

一年又是中元節 冉冉浮生奈老何 赤壁幾番經壬戌 更無人似老東坡 池館朝來小雨過 碧梧陰靜挾秋多 孟蘭供佛非吾事 穩酌香醪對小娥.

66) 徐居正, 「中元」, 『四佳詩集』 卷之五十二 第二十五.

雨霽新涼斷送秋 一年時序劇悠悠 無人解賞中元節 千古風流赤壁遊 感物興懷頗自傷 孟蘭供佛最荒唐 地官下降何人見 我欲相逢侑一觴.



또 다른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인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선공제의 제오(先公祭儀 第五)」에서 문신이었던 아버지 김숙자(金叔滋, 1389-1456)의 제의 관련 행적을 언급하였다. 宋 인종 대의 한기(韓琦, 1008-1075)가 우란분재 풍속을 따랐던 것을 김숙자가 한스럽게 여기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선공은 종묘(宗廟)를 받드는 데 있어 그 성경(誠敬)을 극진히 다하였다. 매양 아침저녁으로 향(香)을 불사르고 절하고 꿇고 앉아 있었으며, 출고반면(出告反面)을 마치 부모의 생존시처럼 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대사(大事) 및 수화(水火), 도적(盜賊)의 재앙에 관한 일과 자성(子姓)이나 친척(親戚)의 혼취(婚娶), 생망(生亡)에 관한 일과 가관(加官)이나 강급(降級)에 관한 일들을 반드시 종묘에 고(告)하였다.

그리고 제사(祭祀)에 대해서는 주 문공(朱文公)의 예를 근본으로 삼고, 변두(籩豆)의 숫자와 축판(祝版)의 글은 이천(伊川)의 법식을 사용하였으며, 절일(節日)의 시식제(時食祭)는 한 위공(韓魏公)의 법식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우란재(孟蘭齋)에 대해서는 항상 한 위공 또한 유속(流俗)에 빠졌던 것을 한스럽게 여기었다. 67)

조선 중기의 문신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은 『제봉집(霽峯集)』에 실린 「중원일우(中元日雨)」에서 우란분재를 비루한 풍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종구나, 가을바람 불고 옥 같은 이슬 내리는 때여, 중원(中元)의 아름다운 절기에 비 사납네. 시원한 바람에 청아한 가을 소리는 이룬데, 축축한 습기는 누린 봉총(封籠)을 적시누나. 호수 빛은 알록달록 갓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고, 벼꽃은 윤기 넘쳐 기름 흐를 듯하네. 우란분재(孟蘭盆齋)라는 오랜 풍습 심히 비루하지만, 군자는 응당 놀라고 두려운 마음[怵傷] 더해야 하리. 68)

67) 金宗直, 「先公祭儀」, 『佔畢齋集』卷之二.

先公於奉宗廟 曲致其誠敬 每朝夕拈香拜跪 出告反面若平生 凡國家大事及水火盜賊 子姓親戚婚娶生亡 加官降級 必以告 祭祀以朱文公禮爲本 而籩豆之數 祝版之文用伊川 節日時食倣韓魏公 孟蘭齋 則常恨韓公亦爲流俗所陷也.

68) 高敬命, 「中元日雨」, 『霽峯集』卷之一.



조선 후기의 최흥벽(崔興璧, 1739-1812)도 『두와집(蠹窩集)』에 실린 「강호김선생청익소(江湖金先生請諡疏)」에서 김숙자가 한기에 대해 비판한 것을 인용하며, 불교의 법도와 천주교 등을 사악한 설로 언급하고 있다. 불교의 장례와 제례를 쓰지 않았다는 언급은 조선 후기 당시에 불교식 장례와 제례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장례와 제례는 끝내 불교의 법도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일찍이 「韓魏公書儀」에 우란분재(盂蘭盆齋)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보고는 세속의 풍속이 여기에 빠져들을 깊이 탄식하였다. 성조(聖朝) 이래로 서교(西敎: 천주교)가 감히 방자히 횡행하지 못한 것은 실로 여기에 힘입은 것이리라. 오호라! 김숙자(金叔滋)의 학문은 이렇게 정대하였고, 덕과 의로움은 이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니, 성도(聖道)를 호위하고 사악한 설(說)들을 물리친 공이 있었도다.⁶⁹⁾

한편 비판적 입장과는 달리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이(李珣, 1536-1584)는 『율곡전서(栗谷全書)』에 실린 「절서책(節序策)」에서 우란분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7월 보름은 중원(中元)이라 우란분공(盂蘭盆供)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옛사람들이 8월 보름에 달이 뜨지 않음을 한해의 한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하니, 광한궁(廣寒宮) 은교(銀橋)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하구나.⁷⁰⁾

조선 중기의 문신 이식(李植 1584-1647)은 「답왜인문목(答倭人問目)」에서

好是金風玉露時 中元佳節雨偏奇 涼飄青瑣秋聲早 細濕黃封寵渥滋 湖色縵紋初散錦 稻華沾潤欲流脂 孟蘭舊俗雖堪鄙 君子應添愴惕思.

69) 崔興璧, 「江湖金先生請諡疏」. 『蠹窩集』
而喪葬祭禮 終不用浮屠法 嘗於韓魏公書儀 見有孟蘭齋之說 而深歎其流俗之所陷 聖朝以來 西敎之不敢熾肆 實有賴於此矣 嗚乎 叔滋之學問如彼其正大 德義如彼其純美 而衛聖道關邪說之功

70) 李珣, 「節序策」, 『栗谷全書』卷之五.
七月望日爲中元 孟蘭盆供之設 亦何所自耶 古人以中秋無月 爲一歲之恨 廣寒銀橋之說 亦果信然歟.



중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이 확인된다

7월 15일을 중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디 선가(禪家), 불가(佛家)의 글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승니(僧尼), 도속(道俗)이 다 이를 숭상하여 우란분공(盂蘭盆供), 초제(醮祭), 송경(誦經)의 행사를 치른다. 우리나라의 승가(僧家)에서는 모두 이날 재를 올리고 선사(先師)의 혼령에게 음식을 바치는데, 세속에서 이를 본받는 경우가 많다.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이를 무시하는데 다만 보름날이기 때문에 예에 의거하여 선조들께 제사를 올린다.⁷¹⁾

불교와 도교에서 이 날 각각 우란분재와 초제를 치르며 특히 불교에서는 재를 올리고 있고 세속에서 많이 본받는다는 것을 통해 조선 중기의 우란분재의 실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음 문집 기록들을 통해 우란분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담장을 돌아 든 오늘 저녁 문득 가을철을 만났네.
청담한 바람소리 막 일어나니 여름비 그쳤도다.
팬한 흥 일어 홀로 시구(詩句)에 의지해 흘려보내니,
방탕한 마음이 매번 뒤쫓아 술꾼으로 노닐게 하네.
억지로 대성(臺省)에 종종걸음 치며 가 보았지만 끝내 임명되지 못하고,
그윽한 자연으로 돌아오려 하나 방도가 없네.
수많은 조정의 계책 고원(高遠)하여 헤아릴 수 없고,
흰 머리는 공연히 스스로 깊은 근심만 품게 하네.

예로부터 천지(天地)는 (만물의) 여관이라,
호수(濠水)가에서 즐거움이 낚시에 있음을 누가 알리오.
방랑하는 신세 타인의 비웃음과 욕 모여들을 견디다 보니,
남은 세월 다하여 나부(羅浮)의 옛 인연을 어루만지네.

71) 李植, 「答倭人問目」, 『澤堂先生別集』 卷之一.

中元○七月十五日 謂之中元 此說本出仙佛書 故僧尼道俗 皆尊尚之 有盂蘭盆供醮祭誦經之事 我國僧家皆以是日 設齋薦先魂 氓俗多效之 士大夫家則無之 但以望日故 依禮奠先祠.



가산(家山)이 눈앞에 있으니 책에 의지하기 어렵고,
 세상일 마음을 경계하나 귀밑 터럭은 이미 성글었네
 오랜 풍속인 우란분재(盂蘭盆齋)가 오늘이라,
 한바탕 술 마시며 시 지움에 함께 있는 사람과 화합하기 자연스럽네.⁷²⁾

백 척이나 되는 웅장한 성은 산수(澗水)가 들관을 내리누르고,
 푸른 언덕의 굳건한 방비는 서문(西門)을 장엄히 지키는도다.
 수(隋)나라 사졸들이 황하에서 목메어 하고,
 부처의 바다에는 우란(盂蘭)과 일곱 부처가 있네.
 대지는 황금 물결일고 구름 낀 가을 하늘은 막막한데
 높은 누각에 백발 노인은 술에 취해 흔들흔들거리네
 천 년의 지나간 일들 자취 텅비어
 물결 소리만이 소란스레 시끄러움을 용납하네.⁷³⁾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하여 국사와 왕사 제도가 정착한 것에서 불교를 기본이념으로 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각종 불교 행사가 성행하였고, 불교의례나 행사에서는 각종 연희가 연행되었다. 고려시대 우란분재에 대한 기록을 대부분 『고려사』에 의존하고 있어 어떻게 설행되었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각종 세시기에서 고려시대의 우란분재가 매년 열렸다고 전하는 것을 볼 때 고려의 다른 불교행사와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통치이념이 성리학이었지만, 민간에서는 불교적 세시나 관습이 지속되고 있었다. 일부 유학자들은 사찰에서 거행하는 우란분재를 비판하였으나 유학자들이 남긴 우란분재 관련 비판적 글들을 통해서 오히려 조선시대에도 서민들 사이에서 계속 우란분재가 전승되고 있었음을

72) 鄭弘溟, 『崎庵集』 卷之五.

掖垣今夕忽逢秋 涼籟纔生暑雨收 漫興獨憑詩句遣 狂心每逐酒人遊 強趨臺省終無補 欲返林泉未有由 多少廟謨高莫測 白頭空自抱沈憂 古來天地一蘧廬 濠上誰知樂在魚 浪跡任他譏罵集 殘年輸盡拍浮餘 家山在眼書難寄 世事驚心鬢已疏 舊俗盂蘭今日是 一場觴詠合堂初

73) 李重慶, 『雲齋遺稿』 卷之二.

百尺雄城鎮澗原 青丘鎖鑰壯西門 隋家士卒三河咽 法海盂蘭七佛尊 大地黃雲秋漠漠 高樓白酒醉幡幡 千年往事空陳迹 獨有潮聲閱劫喧.



방증하였다.

개화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불교계도 침체를 겪지만, 이미 세시풍속으로 자리매김한 우란분재는 지속적으로 설행된다. 1910년 우란분재에는 서울 시내 동문 밖 사찰에 수 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우란분재가 설행된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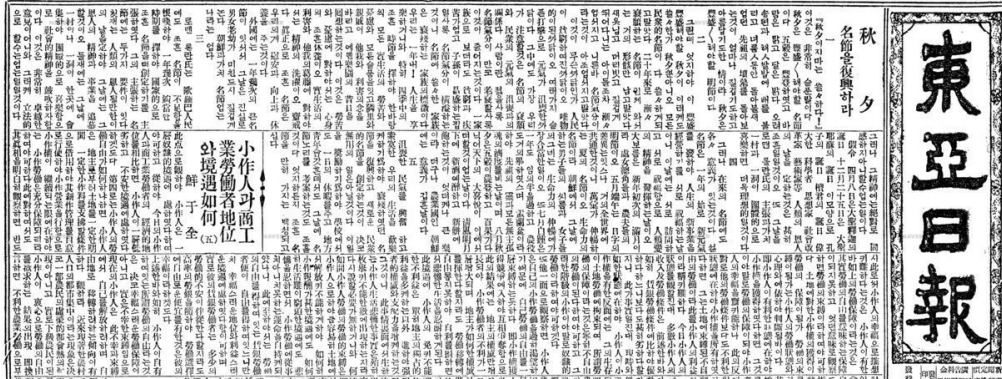


황성신문 1910년 8월 21일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세시풍속을 금하는 시책에 따라 변화를 겪는다. 1918년에는 평양 창전리에 소재한 유점사(楡帖寺) 포교당에서 7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신도 100여명이 범당에 참석한 가운데 우란분회식이 설행되는데, 불공과 목련강연을 진행하였다.⁷⁵⁾ 1923년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七月白踵은 一年도 임의 半을 過하고 農役도 거의 畢하였으며 盂蘭盆이라 하여 先祖의 靈과 모든 無主孤魂의 濟度를 비는 날 이라고 우란분을 설명하며, 설, 대보름, 단오, 추석과 함께 일제 식민지 중 부흥해야 할 명절로 꼽고 있다.⁷⁶⁾

74) 황성신문 1910년 8월 21일(음력 1910년 7월 17일) 2면.
 “風聲鶴唳 日前中元日에 東門外寺刹에 數千觀光人이 會集호야 盂蘭盆을 參觀호얏고 再昨日大漢門前某家에 城內各麵商이 會同호야 營業上會議를 開호얏는디 在京城日本人等은 此에 對호야 何等疑點이 發生호였던지 鍾路附近에 在호 日人中에 或家産을 撤호야 移轉호 者가 有호얏다더라”
 75) 매일신보 1918년 8월 25일 4면.





동아일보 1923년 9월 26일

이 기사의 내용에서 백중(白鍾)으로 표현한 점에서 불교적 성격이 아닌 민간 세시적 성격이 보인다 그리고 우란분재의 대상에서 무주고혼의 용어가 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재자의 선망조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혼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1925년 충청남도 공주와 1935년 경상도 안동에 있는 포교당에서도 우란분재가 설행된 사실을 보도하였다.⁷⁶⁾

재와 함께 강연이 열리기도 하고, 우란분재 전후로 우란분에 관한 강연이 열리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929년 우란분재 전날인 8월 18일 일요일에 각황사(覺皇寺, 지금의 조계사)에서 ‘우란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태흡(金泰洽, 1899-1989)의 강연이 행해졌으며,⁷⁸⁾ 1934년에는 우란분재 이틀 후인 8월 26일에 向上會館에서 같은 제목으로 이지광(李智光)의 강연이 행해진 기사가 우란분재와 강연의 관련성을 말해준다.⁷⁹⁾

1920년대 불교언론지에서는 우란분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와 현생의 부모 뿐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돕는 현세 사회사업의 필요성

76) 동아일보 1923년 9월 26일 1면.

77) 동아일보 1925년 8월 27일; 매일신보 1935년 8월 18일.

78) 동아일보 1929년 8월 18일

79) 동아일보 1934년 8월 26일.



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1927년 우란분재에 각황사에서는 백 여 명의 절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⁸⁰⁾

한편 우란분일 전후로 3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각황사에서 지장경을 설법하고 지장예참정진을 했다.⁸¹⁾ 이와 같은 시기의 기사에서 우란분재에 천일기도를 회향하는 예도 있다.⁸²⁾ 이로써 당시 우란분재 실행의 일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각 사찰에서 다양하게 우란분재를 실행하는 행태와 유사하다

한편 함경북도 경흥군 응기항에 있는 정도종 북선불교(北鮮佛敎) 포교소에서 성대하게 거행한 우란분재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⁸³⁾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우란분재를 실행했는데, 반야용선을 분장하여 차, 과, 향, 미를 가득 싣고 우란분재 날 밤에 해상에 띄워 해중고혼을 달래었다. 이는 '강 가운데에서 용주(龍舟)를 타고 범악(梵樂)을 연주하고 선송(禪誦)을 읊조렸다는 『제경세기승(帝京歲時紀勝)』에서 묘사한 우란분재의 실행 모습과 연결된다⁸⁴⁾

1927년 금강산 유점사에서서도 우란분재가 성대히 거행되었다.⁸⁵⁾ 오전 5시에 고훈천도식을 시작으로 하여, 오전 7시부터는 금강서화전람회라는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유점사의 강원에서 주최하고, 청년회가 후원하였는데, 3관에 걸쳐서 전시가 진행되었다. 제1관에서는 어린이들의 작품 130여 종을 전시하고, 제2관에서는 유점사 사무소에 보관한 고고유물

80) 동아일보 1927년 8월 11일.

“명십이일 음력 칠월십오일은 우란분이라는 百種날이므로 시내 각황사에서는 금 십이일 오전 중에 간단한 기념의식이 있는 후 설교가 끝나면 오후 한 시 경에 시내에 널려 있는 절인 약 백 명을 모아 밥 한 끼를 먹이리라 하여 명일 오후 일곱시 경부터 동교당에서 기념강연으로 인생의 의의와 불교의 정신이라는 연제로 김태흡씨가 강연하리라더라.”

81) 불교 1926년 8월.

82) 불교 1926년 8월.

“강원도 철원군 보개산 석굴암에서 1000일 기도를 행함은 세인의 공지뿐 아니라 본지에도 누재한 바이니와, 아무 마장없이 천일의 기도를 원만히 마치고 음력 7월 15일 즉 우란분일로써 회향법요를 집행하였다더라.”

83) 불교 1926년 8월.

84) 『帝京歲時紀勝』 각주 23번 참조.

85) 불교 1927년 9월.



진열장을 특별히 공개하여 일반관람 하도록 하였으며, 제3판에는 도서관을 열었다. 내외국인, 승속 등 각계각층에서 모두 250명 이상 참관하였으며, '3000리 이상의 산꼭대기에 있는 분수로는 매우 성황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받았다. 1940년에는 우란분재 법요식을 라디오로 방송하기도 하였다.⁸⁶⁾ 대규모의 전시를 우란분재에 개막하고, 우란분재 법요식을 중앙 방송에서 송출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란분재에 대한 인식과 신앙, 그리고 습속을 보여준다

해방 직후의 우란분재에 대하여 살펴보자. 1946년 태고사(太古寺, 지금의 조계사)에서는 순국열사위령 우란분재법요가 열린다.⁸⁷⁾ 천도 대상이 7대 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목숨을 잃은 순국열사로 확대된 것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란분재도 선행대상과 양상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50년대 이후에도 널리 우란분재가 선행된다. 현대에 거행하는 우란분재는 사찰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사찰에서 법회의 의식은 석가탄신일 봉축법회와 같은 절차로 행하며, 다만 고훈(孤魂)과 선망조상을 천도하는 의례가 추가된다. 조상을 천도하는 특성에 맞추어 아미타경, 지장경, 부모은중경 중 선택해서 독경하기도 하고,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독송하기도 한다.

돌아가신 부모의 천도를 위해 승려에게 공양을 올리는 사은법회로 진행

자유신문 1946년 7월 27일

86) 불교시보 1940년 8월.
 “음력 7월 15일 오후 8시 25분에 경성 중앙방송국에서는 박해룡, 안경신, 지용성, 주택민 이상 법사를 초청하여 엄숙히 우란법요식을 정중히 방송하였다고 한다.”
 87) 자유신문 1946년 7월 27일.



한다. 1부는 부처를 모셔 올리는 차례로 관육과 상단불공축원이 진행된다. 2부는 삼귀의, 보현행원, 청법가, 설법, 우란분공양, 사은사봉독, 불자대중 삼배 순으로 진행한다.

3부는 영가시식과 봉송으로 진행된다. 우란분 공양에서는 신도회가 마련한 공양물을 사찰에 주석하는 대중 승려에게 올리고 이어 신도들이 합창하고 사은사를 봉독하며 승려에 대한 공경의 예를 다한다. 우란분 공양에 앞서 대중 승려들은 우란분경을 함께 봉송한다. 신도들이 마련한 공양물은 승려들의 내의, 양말, 먼 티셔츠, 치약, 비누와 같은 일용품 등이다. 이러한 설행사례는 하안거를 해제하는 자자일에 승려에게 공양하는 경전의 내용이 강조되어 반영되는 사례이다. 승보공양을 하던 전통풍습이 현대까지도 전승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의 우란분재와 비교해서 현대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란분재의 설행 기간이다. 1일, 3일, 또는 우란분재 전후 3일을 포함하여 7일 동안 설행 하던 것이 오늘날 대규모 사찰에서는 대부분 49일 동안 설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49일동안 7일에 한 번 씩 설행하는데, 입재부터 회향까지 총 8회 진행한다. 음력 5월 26일 입재를 시작으로, 6월 2일 초재, 6월 9일 2재, 6월 16일 3재, 6월 23일 4재, 6월 30일 5재, 7월 7일 6재, 7월 14일 7재까지 이어진다. 사찰에 따라서는 7재 후 방생 대법회를 우란분재의 최종 회향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렇게 49재 형식으로 우란분재를 지내는 풍속은, 지역과 사찰의 규모에 따라 시기 차이를 보이면서 1990년대 이후 들어 시작된 것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영가를 모신 재단에 경전을 찍어서 올리는 印經 공양을 하는데, 초재부터 6재까지 7회는 부모은중경을 7부분으로 나누어 인경한 것을 올리고, 7재에서는 반야심경을 인경하여 올린다. 조계사의 경우 7재를 마친 후 방생 법회로 우란분재를 회향한다. 2015년에는 용주사에서 열린 우란분재 방생 법회에 약 4000여 명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서울 봉은사에서는 우란분재 기간 동안 부모은중경을 5회에 걸쳐 강설한다. 2014년 봉은사 우란분절에서는 입재, 초재, 3재, 5재, 7재에서 주지스님



의 부모은중경 범문, 4재에는 포살법회, 2재, 6재에는 천도법문이 진행되었다.

승보사찰인 송광사에서는 음력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동안 우란분재를 실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방생 법회는 실행하지 않았다. 조계사와 봉은사의 경우는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하여 많은 인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七七齋 형식의 49재로 우란분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우란분재 전통에서 음력 7월 15일이라는 시기와 승보공양은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연원을 알 수는 없으나 현대 우란분재에는 白燈을 밝혀 죽은 조상을 추모하는데 초기 우란분재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발굴된다면 오늘날 우란분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盂蘭盆齋와 연희활동

제1절 중국 盂蘭盆齋의 연희

당(唐) 말기에는 우란분재 의식 뿐만 아니라 변문(變文)으로도 목련구모 고사(目連救母故事)가 유행했다. 둔황에는 목련변문이나 목련연기 등 11종의 문서가 전해지고 있다. 이 변문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줄거리는 중국식 효행 이야기로 윤색되었다. 이것을 이어받은 북송(北宋)에서는 도읍지인 개봉(開封)의 극장에서 7월 7일 밤부터 7월 15일까지 잡극 목련구모를 공연했던 것이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 기록되어 있다.⁸⁸⁾ 『동경몽화록』에 기록된 목련구모의 구체적인 대본이 남아 있지 않지만, 밤낮없이 일주일 내내 상연했다면 변문보다도 훨씬 증보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일본 교토의 금광사(金光寺)에 전하는 남송(南宋)의 <불설목련구모경(佛說目連救母經) 변상도>에서는 부상, 유사 등 후세의 희곡에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이 늘어난다. 이들의 전승을 받아 명(明) 중기에 정지진(鄭之珍)이 목련희의 새로운 텍스트인 목련구모권선희문(目連救母勸善戲文)을 지었다. 남녀간의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을 장기로 하는 남방의 희곡 양식에 맞추어 목련존자의 약혼자로 조세영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효자 목련과 절부 조세영을 짝지어 이야기를 윤색하였다.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목련의 어머니 유사진과 현세에서 고통받는 며느리 조세영의 2대에 걸친 여인의 비극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목련은 왕사성의 큰 아들인 부상과 그의 아내 유사진의 외동아들인 나복으로 등장한다. 아버지가 병사하고 난 뒤, 어머니 유씨가 상중에 정

88) 각주 29 참조.



진결재의 금기를 깨뜨리고 육식을 탐닉하는 바람에 천제의 분노를 사게 되어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복은 어머니를 극락에 환생토록 하기 위해서 약혼자인 조세영과 이별하고 흰 원숭이를 앞세워 어머니의 유골을 서천으로 운반하려 하지만 도중에 흰 원숭이가 어머니의 유골을 빼앗아 달아나 버린 탓에 절망한 나머지 연못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석가여래는 나복의 효심을 안타까워하여 그를 승려로 환생토록 하고, 목련존자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목련은 석가여래로부터 받은 석장으로 지옥문을 차례차례 깨뜨리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목련은 마침내 제6전에서 어머니를 만나지만 어머니는 제10전에서 개로 변해 버리고 만다. 현세에서 사냥개가 된 어머니는 조세영이 출가해서 살고 있는 비구니 암자로 들어간다. 사냥개의 뒤를 쫓아 암자로 들어선 목련은 석가여래의 지시에 따라 조세영과 함께 우란분재를 열고 그 공덕 덕택에 어머니는 사람으로 되돌아와 경사스럽게 승천한다.

이 이야기에서 목련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두 차례의 시도를 한다. 처음에는 속인 나복으로 「서유기」의 영향을 받은 듯 흰 원숭이를 앞세우고 서천으로 유골을 옮겨 가려 하지만 실패한다. 이는 사자의 망령이 서천에서 해탈하기를 바라는 세속 장례 의식의 반영일 것이다. 두 번째는 출가한 목련으로 지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를 구제하려는 시도이다. 여기서는 지옥의 비참함과 목련의 불굴의 집념이 강조되며, 마지막에 가서는 우란분재를 통해 마침내 어머니를 구제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청대 이후 각지에서 성립한 목련회 각본의 거의 대부분은 정지진 분을 바탕으로 삼아 윤색되고 있다. 혼례나 장례 등 마을의 행사를 삼입해서 줄거리를 늘리는 사례가 많고, 그 중에는 정지진 이전의 오래된 목련회의 흔적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의 연출에서는 목련이 지옥문을 깨뜨릴 때마다 그 속에 유폐되어 있던 수많은 망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온다. 여기에서 전쟁 중에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등 마을에 저주를 내린 다며 두려워했던 비명횡사한 사람들의 망령을 목련이 다스려 구제하는 이야기가 삼입된다.



우란분재에 맞춰 상연되는 목련회는, 지옥을 순례하는 이야기만 상연하면 하루나 이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행사가 사흘 이상인 경우에는 줄거리를 더 보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으로 본다. 세 권으로 구성된 정지진본은 사흘 상연 각본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의 각본들 중에서는 닷새용인 5권본, 일주일 짜리인 7권본, 더 나아가서는 49일용인 49권본까지 있으며, 이 각본들에서는 첨가된 이야기들이 늘어나 있다.

절강본(浙江本), 강서본(江西本), 호남본(湖南本)에서는 목련전불이라는 도입 부분에 목련의 어머니와 같이 과거한 죄로 큰 뱀으로 모습이 바뀌어버린 양 무제의 황후 치씨의 이야기를 넣었고, 복건본(福建本), 사천본(四川本)에서는 목련의 증조부인 부천두, 조부 부송, 아버지 부상 등 삼대에 걸친 인연 이야기가 나온다 호남본에서는 화목련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정절을 의심받아 목매 자살하는 열부의 이야기 계모와 밀통한 죄로 자살하는 효자 이야기 등을 삽입한다

각 본 모두 사이사이에 잡기, 혼례, 장례 등의 장면이 있다.⁸⁹⁾ 극중에서 압송된 어머니 유씨가 도망칠 때 유씨를 쫓아오던 저승사자가 들고 있던 갈래창을 세 번 던지는 무술이 등장하고 설산에서 요괴와 싸우는 석가모니가 목이 3번 잘렸다가 다시 붙는 광명에서는 환술이 등장하며, 배우의 발에 장대를 묶어서 저승사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장대를 묶은 채로 극장을 한 바퀴 돌면서 칼 타기, 불 건너기, 줄타기 등의 잡기를 삽입하기도 한다.

사천의 목련회에서는 혼례 풍속이 주목할 만하다. 어머니 유씨 역을 맡은 배우가 결혼하는 날 의관을 갖춘 후 가마를 타고 취타를 불며 온 마을을 두루 돌아다닌다. 신랑, 친족을 맡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동하는데,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마를 열어서 보게 한다 의장대가 앞에서 인도하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행렬이 끝나면 무대로 올라가 맞절을 나누고 극중의 줄거리를 연기한다.

호남의 목련회에서는 장례풍속이 주목된다. 어머니 유씨가 죽은 후 목련 역을 맡은 배우는 가사를 입고 무대를 내려가 공연이 이루어지는 마을을

89) 문성재, 「중국의 종교극 목련회」, 『인문학연구』 8, 2001, 101-104면 참조.



집집마다 다니면서 큰 절을 올리고 시주를 부탁한다. 관중들은 이 때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대문을 활짝 열고 목련에게 쌀과 은화를 보시한다. 돈이 모이면 현지의 실제 승려나 도사를 초빙하여 죽은 유씨의 명복을 비는 불사를 진행한다. 불사 후 관에 유씨의 시신을 담은 다음 현지 풍속에 따라 관을 지고 묘지까지 가는데, 장례 행렬에는 배우 외에 관중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곡을 한다.

폐쇄적인 중국의 농촌사회에서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련회의 상연은 현지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⁹⁰⁾ 목련구모고사 외에 현지의 다양한 풍속이 재현되면서 무대 밖 야외까지 무대로 확장되었고 배우 외의 관중들이 놀이 과정에 동참하였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안휘성 기문현(安徽省 祁門縣) 徽州目連戲(회주목련회), 호남성 서포현(湖南省 溆浦縣) 진하목련회(辰河目連戲), 하남성 남악현(河南省 南樂縣) 남악목련회(南樂目連戲), 절강성 소흥시(浙江省 紹興市) 소흥목련회(紹興目連戲), 강서성(江西省) 강서목련회(江西目連戲) 등의 목련회가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격인 중국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中國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제2절 한국 盂蘭盆齋의 연희

고려와 조선의 우란분재를 어떻게 설행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나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기록을 통해 우란분재에서 연희를 펼치고 경전을 講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사』 문종 10년(1056) 9월 병신조의

90) 문성재, 앞의 글, 102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우란분재 때 “나라의 역사를 기피하는 무리들이 불교에 이름을 걸어놓고…(중략)…기생들과 시끄럽게 섞여서 우란분을 모독하고 있다. 속인의 관을 쓰고 속인의 옷을 입으며, 사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서 북장구와 깃발을 갖추어 노래하고 악기를 불며 촌락과 시정으로 다니면서 사람들과 난투하여 피투성이가 된다.” 우란분 때 연회를 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고려사』에는 예종 元年(1106) 7월 15일에 우란분재를 열고, 7월 16일에 『목련경』을 강했다는 기록은 우란분재의 연회성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예이다.

“계묘일에 長齡殿에서 우란분재를 올려 속종의 명복을 빌고 갑진일에 또 명망있는 승려를 불러서 목련경을 강의했다.”⁹¹⁾

충목왕(忠穆王) 3-4년(1347-1348) 사이에 편찬된 『박통사언해』에서도 우란분재 때 『목련경』을 강했다고 전한다.

“7월 15일은 여러 부처님이 해하(解夏, 여름 안거를 마침)하는 날이라 경수사(慶壽寺)에서 여러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란분재를 한다기에, 나도 사람들을 따라서 구경갔다. 그곳의 단주(壇主)는 고려의 승려였는데, 새파랗게 깎은 둥근 머리에 새하얀 얼굴을 가졌고 충명과 지혜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창하고 읊는 소리가 여러 사람들을 압도했고, 경률론(經律論) 삼장(三藏)에 모두 통달해 있는 정말로 덕행이 뛰어난 승려였다. 『목련존자구모경(目連尊者救母經)』을 설하는데, 승니도속(僧尼道俗, 승려와 속인)과 선남선녀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나, 모든 사람들이 두 다리를 꼬고 앉아 두 손을 들어 합장하고 귀를 기울이어 소리를 듣고 있었다.”⁹²⁾

승려의 속강을 ‘창하고 읊는 소리’는 『목련경』 설행의 연회적 측면을 보여준다 전문적인 속강승에 의하여 경전의 서사적 내용은 우리말로 강의

91) 각주 37 참조.

92) 각주 53 참조.



형태를 유지하고 그것을 요약하여 한문계송 또는 우리말 시가형태로 읊어 내면 훌륭한 창이 되어 강창구조를 이루었을 것이다.⁹³⁾

강창문학은 승려들이 경전의 내용을 민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기 위하여 불교 사원에서 연행했던 강창에 뿌리를 두고 있다.⁹⁴⁾ 창(唱)하는 운문과 강(講)하는 산문이 섞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에서 강창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자이자 역사가인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은 「고금체시 古今體詩」에 고려 중엽 우란분재에서 경전을 강하는 모습을 짐작케 하는 구절을 남기고 있다.

“신령스런 송산(嵩山) 울창하고 험준하여 그늘진 골짜기는 우묵하여 어두컴컴하였네. 새로 난 대나무는 황량한 언덕을 희롱하고, 꽃다운 난초는 그 옥한 못에 흠어들네. 그 옛날 고려 중엽에 불당(佛堂)에는 단청이 흐르고, 아스라한 자취문(紫翠門) 꽃핀 좁은 길 구정(毬庭)에 이어져. 그때 아름다운 사람(如花人)이 와서 우란경(孟蘭經) 강(講)하였네. 지금은 다만 언덕 일 뿐이라, 폭포수 날로 맑고 깨끗해지네. 제왕(帝王)의 가너린 글씨는 어디를 떠돌고 있으며, 십선(十仙)은 또 누구란 말이고. 작은 다리 옆 돌병풍에 기이한 나비 검은 날개 필력이니 그때 새 깃 푸르러지리라 짐작이 되네. 홀로 떠나가려는 뜻 도리어 아득해져 정령(精靈)을 만난 듯 슬퍼지네 95)

구정(毬庭)은 격구(擊毬)를 하는 뜰인데, 팔관회, 노인 연회, 대규모 사면 등의 大朝會 장소였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팔관회, 반승, 인왕경 강독, 백좌회 등 구정에서 열린 불교행사가 44회 나타나는데,⁹⁶⁾ 여기에서 우란분재를 거행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유득공의 시를 참고하면 구정

93) 박광수, 「한국목련전승의 유통양상」,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 중앙인문사, 2000, 412-414면.

94) 전경옥 편저,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04, 85면.

95) 柳得恭, 「古今體詩」, 『冷齋集』

神嵩鬱峒嶠 陰洞窅以冥 新竹弄荒陂 芳蘭散幽汀 伊昔麗中葉 佛宇流丹青 迢迢紫翠門 芳徑連毬庭 時有如花人 來講孟蘭經 而今但丘隴 飛泉日泠泠 天家瘦金書 何處成飄零 十仙且云誰 小橋隣石屏 異蜨飄墨翅 時禽度窠翎 孤往意轉杳 悵如逢精靈.

96) 김창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86-87면.



이 우란분재 후 목련경을 강하는 장소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如花人’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문맥상으로 如花人은 승려를 의미하고 승려가 우란경을 강했다는 해석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조선 전기에 목련경을 강했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 중종 31년(1536) 소요산 연기사(烟起寺)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비롯하여, 선조 17년(1584) 승가산 흥복사(興福寺) 간행본과 영조 11년(1735) 묘향산 보현사(普賢寺) 간행본, 철종 13년(1862) 금강산 건봉사(乾鳳寺) 간행본 등 10여종의 목련경이 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조선시대에 『목련경』이 널리 유통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 실린 글에서도 조선 말 우란분재에서 『목련경』을 낭송하는 풍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사의 종소리 울리고 등불은 푸른데
천겁 세월 중 가장 밝은 뜰에 가득한 중원의 달빛
명복을 빌어 아비규환 지옥에서 구해 내려고
향 사르고 꽃 공양하며 목련경을 낭송하네⁹⁷⁾

조선시대 이후 근대 불교신문과 잡지에서 ‘목련극’을 공연했다는 기사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1929년 경기도 양주군 보광사에서 포교를 목적으로 <목련소인극>을 거행하였다는 것이 한국에서 목련극이 행해졌다는 현재 가장 이른 기록이다.⁹⁸⁾ 전체 4막으로 구성되었고, 10명의 배우가 18역(부상장자, 청제부인, 여자노비, 화승, 나복, 금지, 분리, 덜렁쇠, 상두군, 기생, 건달, 여래, 염라대왕, 판관, 판사, 시관, 옥졸1, 옥졸2)을 연기하였다.⁹⁹⁾

97) 崔永年, 「孟蘭盆」, 『海東竹枝』

山鍾一落佛燈青 千劫中元月滿庭 冥福拔來阿鼻苦 香花施讀目蓮經.

98) 불교 1929년 3월.

99) 배우들의 성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10명 모두 남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별로 연기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명길(부상장자, 건달, 판사, 옥졸), 신경훈(청제부인), 함수동(여자노비, 분리), 장복남(화승, 시관), 한규진(나복, 기생), 함일변(금지), 윤만석(덜렁쇠), 박형변(상두군, 염



1932년 불교 제98호에 김태흡의 희곡 「우란분」 대본이 실리고 이후 이것을 극본으로 하여 <목련극>이 여러 차례 공연되었다. 1932년 석가탄신일에 순천 선암사에서 봉축행사에서 <팔상극>과 함께 공연되었고 이에 앞서 음력 4월 2일에 인근 도시에서 악기 연주를 하며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였다.¹⁰⁰⁾

1940년 서울 봉원사에서도 석가탄신일 봉축행사에서 300여명이 모여 강연을 듣고 목련극을 공연하였으며¹⁰¹⁾, 같은 해 6월에는 불교시보사 후원과 봉원사 주최로 수원의 일반 극장에서 <목련기>라는 제목으로 공연하였고 800여 명의 관중이 보았다.¹⁰²⁾ <목련기>는 전체 3막 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김태흡이 각색하고 이광래가 연출하였다. 이어 8월에도 수원 공연과 마찬가지로 불교시보사 후원, 봉원사 주최로 사찰이 아닌 일반 극장에서 <목련극>이 공연되었다.¹⁰³⁾ 7월 15-17일 총 3일간 경성부민관에서 공연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이 총 6000명이었다. 개성, 평양, 사리원 등지에서도 순회공연하여 흥행하기도 하였다¹⁰⁴⁾ 이후 공연 요청이 많아 9월경부터 대전, 강원, 전주, 군산, 목포, 마산, 진주, 안동, 부산 동래지방에 순회공연을 계획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1941년 5월에도 경성부민관에서 <목련극>을 상연하여 1000여 명이 관람하였고,¹⁰⁵⁾ 6월 2-3일에는 인천공회당에서 상연되었다.

1929년 양주 보광사 공연을 제외하면 모두 김태흡의 우란분 대본 발표

라대왕), 최일허(여래), 함일승(판관, 옥졸)

100) 불교 1932년 6월.

“순천 선암사에서 성탄법식을 기념 봉축하기 위하여 종무소, 탄일계(봉축추진위원회 격), 선암동맹강우회 4개단체로 연합회를 조직하여 총 법요비 240여원으로써 거행하게 된 바 음력 4월 2일에 순천 별교 보성 장흥 낙수 광천 각도회지에 성탄선전물을 악기로 선전하였으며 기념극, 기념강연, 설교가 있었다. 2일에 걸쳐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선암사 일대가 인산인해가 되었으며 그 법요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1일 음력 4월 7일

제2일 음력 4월 8일-팔상극, 목련극“

101) 불교 1940년 5월.

102) 불교시보 1940년 7월.

103) 불교시보 1940년 8월.

104) 불교시보 1940년 8월.

105) 불교시보 1941년 6월.



이후에 공연되었다. 김태흡이 9세부터 13세까지 범패와 나비춤을 배웠던 곳이 경기도 장단 화장사와 양주 보광사임을 감안할 때 1929년 보광사에서 있었던 공연도 김태흡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김태흡은 승려로서 불교의 선전을 목적으로 희곡을 창작하였는데, 19편이 전한다. 근대 시기 한국 불교계는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로서 불교의 정체성과 일본불교와 구별되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대중화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는데, 김태흡은 거리포교, 불교잡지의 편집과 발행, 대중포교서의 저술 및 간행, 찬불가 창작, 희곡 창작을 통한 예술 공연 등의 대중불교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¹⁰⁶⁾

신문, 잡지 기록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나, 송광사 침계루는 일제 강점기에 승려들이 목련극과 팔상극을 연습하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전한다.¹⁰⁷⁾ 여러 기록들을 통해 우란분재의 연원이 되는 목련구모고사를 내용으로 하는 목련회가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 사찰과 일반 극장에서 공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에 사찰에서 공연한 목련극은, 대부분 우란분재가 아닌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봉축행사에서 공연되었다. 우란분재에서는 의식을 집전하고, 목련극은 별도로 경사스러운 행사에서 공연한 것이다. 이것은 근대 이전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으로 재는 경건하게 지내고 공연은 재와 분리하여 진행한 전통이 있었다가 넘어온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106) 김기중, 「근현대 불교인물 탐구 6-김태흡」, 『불교평론』 49, 2011.

107) 「日變一生年譜」



제4장 韓·中 盂蘭盆齋 연희활동의 문화사적 의미

중국에서는 이미 6세기 중엽에 널리 선행되었던 우란분재는 8세기에는 궁중, 민간으로 외연을 넓혔고, 송대(宋代)에 이후에는 연희활동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송대에는 목련구모고사를 내용으로 하는 잠극을 7일 동안 공연하였고,¹⁰⁸⁾ 원대(元代)에는 사찰에서 연희가 열리기도 하는 등 재만 지내는 행사에서 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¹⁰⁹⁾ 청대(清代)에는 경전을 강하고, 3일 동안 연등을 강물에 띄우기도 하였으며, 배를 타고 불교음악을 연주하고 불경을 염송하는 풍경도 기록에 전한다.¹¹⁰⁾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근대 이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풍속이 반영된 목련회가 원형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사(高麗史)』의 문종 대 조서 기록을 통해 고려 예종 대 이전부터 우란분재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¹¹¹⁾ “불경을 강독하는 장소”가 언급된 것에서 불경은 『목련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란분재가 『불설우란분경』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경전의 길이가 매우 짧아 이보다 내용이 증보된 『목련경』이 널리 강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란분재 때 “나라의 역사를 기피하는 무리들이 불교에 이름을 걸어놓고…(중략)…속인의 관을 쓰고 속인의 옷을 입으며, 사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서 북장구와 깃발을 갖추어 노래하고 악기를 불며 촌락과 시정으로 다니면서…(후략)” 우란분재 때 연희를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불교계통 연희자와 기생들이 함께 공연하는 연희들이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의 기록에서는 『목련존자구모경(目連尊者救母經)』으로 경전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승려의 속강을 ‘창하고 읊는 소리’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목련경 선행의 연희성을 살펴볼 수 있다.¹¹²⁾

108) 각주 29 참조

109) 각주 30 참조

110) 각주 31 참조

111) 각주 51 참조



고려의 승려가 원에 초청되어 『목련경』을 강설했다는 것은 당시 한국과 중국의 불교계의 교류를 보여주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경전, 교학뿐만 아니라 연희도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이다.

조선시대는 국가이념으로 성리학을 표방하였으나, 왕실여성, 사대부가의 부녀자들, 서민층들은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사대부의 문자기록들은 우란분재를 비판하는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란분재가 조선시대에도 민간에서 거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 초기 세종대 실록의 기록에 보듯이 “(전략)…거리 골목에 기를 세우고 쟁과 북을 치며 탁자를 설치하여 찬구를 늘어놓고…(중략)…방울을 흔들며 염불하고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후략)” 모습에서, 민간에서는 고려시대보다 더 성행하는 모습을 보인다.¹¹³⁾

고려시대에 『목련경』을 강하는 전통이, 현재 전하는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시대 우란분재의 연희들은 이후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개화기를 거쳐 근대시기에 목련극을 공연했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에도 이미 『목련경』을 강하거나 목련극을 공연하는 목련구모고사와 관련된 연희활동의 전통이 있었기에 일제 강점기에 연행되었던 목련극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을 것이다. 앞으로 고려, 조선시대 및 근현대시대의 연희활동 관련자료가 더 발굴된다면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우란분재에서 연희가 연행된 전통은, 승보공양을 하는功德으로 선망조상을 구제하는 우란분재라는 의식이 지닌 경건함에 연희공양이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띠는 것으로, 티베트 불교 축제인 설돈절(雪頓節, Shö-stön)에서도 같은 예를 볼 수 있다.¹¹⁴⁾ 하위징아(Huizinga)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에서 놀이와 종교의 놀이의 관계를 언급하며, 신성에게 바쳐진 성스러운 놀이는 인간

112) 각주 53 참조

113) 각주 60 참조

114) 전경욱, 「티베트 가면극의 역사와 연희양상」,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2011 참조.



노력의 최고봉이라는 플라톤의 정의를 인용하였다.¹¹⁵⁾ 의례 행위 혹은 그 행위의 주요 부분은 언제나 놀이 범주에 남아있고 의례를 놀이의 범주에 넣는다고 해서 의례의 신성함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호이징가의 의견처럼, 우란분재는 의식과 연회를 통해 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15) 요한 하위징아 저, 이종인 역, 호모루텐스, 연암서가, 2011.



제5장 결 론

지금까지 우란분재의 유래와 역사적 전개양상 및 연희활동을 살펴보았다. 『불설우란분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란분재는, 기존에 유교의 효사상과 연관 지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 발생 이전 인도에 뿌리 내렸던 조상제사 전통 서역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뜻하는 우르반(urvan)을 모시는 축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도, 서역에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I 장 2절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우란분재가 시대에 따라 전개된 양상을 각종 역사기록과 세시기, 문집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는 가장 이른 기록을 보이는 6세기 이전부터 우란분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송, 명, 청을 거쳐 민간 세시에서 계속 설행되었다. 한국에서 우란분재를 했다고 전하는 가장 이른 기록은 12세기 초이나, 이미 신라시대부터 실행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매년 우란분재를 행하였는데, 궁궐과 왕실 원찰에서도 실행한 기록이 전한다. 고려시대 국교였던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조선시대에도 서민들 사이에서 우란분재가 계속 전승되고 있음을 유학자들이 남긴 우란분재를 비판하는 기록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근대에도 명맥이 이어진 한국의 우란분재는 오늘날 49재 형태로 진행되며 우란분경이나 목련경 대신, 현대에 널리 독송하는 지장경, 부모은중경 등을 읽는 것으로 진행되어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 실행방식이 변모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우란분재에서 실행된 연희활동을 살펴보았다. 음력 7월 15일에 공연된 목련회는 우란분경에 중국적 내용이 추가된 목련변문과 목련경을 각색한 것으로, 다양한 잡기와 교훈적인 내용으로 중국 각지에서 저변 확대되었다. 이어서 한국 우란분재에서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련강이 강창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연행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고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목련회를 공연한 문헌기록이 아직 발견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에 목련회가 목련극, 목련기, 우란분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되었는데, 석가탄신일 등의 사찰 행사에서 공연되었다가 대중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일반 극장에서도 공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우란분재일에 공연된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의 우란분재가 후대에 목련회라는 연희에 중점을 두었다면, 한국의 우란분재는 근대 이전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으로 재와 분리하여 다른 일시에 공연한 것으로 보았다

IV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우란분재의 연희활동이 가지는 문화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목련회를 중심으로 한 우란분재의 연희활동이 명맥을 유지하며 전승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은 고려시대의 목련강과 일제강점기의 목련극 공연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시대 우란분재의 연희활동이 현재 기록으로 전하지 않지만, 고려시대로부터 목련구모고사를 모티프로 한 연희활동의 명맥이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와 근대의 목련극이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동아시아에서 오늘날 가장 활발하게 우란분재를 실행하고 있으며 역사자료도 방대한 일본 우란분재를 고찰하는 것은 동아시아불교문화권의 우란분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우란분재 자체뿐만 아니라 우란분재에서 이루어진 연희활동의 면모와 연희교류사를 고찰하는데 일본 우란분재에 대한 연구는 여러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나, 이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1) 經典

『佛說盂蘭盆經』

『佛說大目連經』

『經律異相』

Jones, J. J, *Mahāvastu* vols.3, Pali Text Society, 1973.

Stephanie W. Jamison and Joel P. Brereton, *The Rigveda : the earliest religious poetry of India* vols. 3,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 史料, 文集 등

『高麗史』

『大覺國師文集』

『朴通事諺解』

『宣和奉使高麗圖經』

『入唐求法巡禮行記』

『朝鮮王朝實錄』

3) 신문, 잡지 기사

『동아일보』

『매일신보』

『불교』

『불교시보』

『자유신문』

『황성신문』



2. 단행본

-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2.
- 구미래,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민속원, 2009.
- 구미래, 『사십구재』, 민족사, 2010.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헌으로 보는 고려시대 민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김영지, 『중국 공연문화의 꽃, 목련회』, 한국학술정보, 2006.
-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 김창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우란분재』, 조계종출판사, 2013.
- 빅터 메이어 저, 정광훈·전홍철·정병운 역, 『당대변문』, 소명출판, 2012.
- 빅터 메이어 저, 김진곤·정광훈 역, 『그림과 공연: 중국의 그림 구연과 그 인도 기원』, 소명출판, 2012.
- 사재동 편,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 중앙인문사, 2000.
- 신지영, 『중국전통극의 이해』, 범우사, 2002.
- 안상복, 『명청시대 지역사회와 공연예술』, 연극과 인간, 2013.
-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재숙·이광수 역, 『마누법전』, 한길사, 1999.
- 이창희 역주, 『조선대세시기 I,II,III,IV』, 국립민속박물관, 2003-2007.
- 이창희 역주, 『중국대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2006.
- 전경욱, 『한국의 전통연희』, 학교재, 2004.
- 전경욱 편저, 『한국전통연희사전』, 민속원, 2004.
- 한국중국희곡학회 편, 『한국과 중국의 연극과 연희』, 서우얼출판사, 2006.
-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편, 『동아시아 기층문화에 나타난 죽음과 삶』, 민속원, 2001.
-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 국학자료원, 2011.
- 劉禎, 『中國民間目連文化』, 巴蜀書社, 1997.
- 劉禎, 『中國民間目連文化』, 北京時代華文書局, 2014.



- 許祥麟, 『中國鬼戲』, 天津教育出版社, 1997.
- 中村元 外, 『岩波 佛教辭典』第2版, 岩波書店, 2002.
- Apocryphal Scriptures*,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5.
- Alan Cole, *Mothers and Sons in Chinese Buddh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David Johnson ed., *Ritual Opera, Operatic Ritual: Mu-lien Recues His Mother in Chinese Popular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9.
- Stephen F. Teiser, *The Ghost Festival in Medieval Chin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3. 논문

- 구미래, 「백중과 우란분재의 발생기원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25, 2003.
- 김기중, 「근현대 불교인물 탐구 6-김태흡」, 『불교평론』 49, 2011.
- 김상영, 「우란분재의 의미와 설행 역사」, 『불교학연구』 22, 2009.
- 김상현, 「고려시대의 화랑 인식」,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9.
- 김영지, 「중국 연극의 형성과 巫俗-目連戲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29, 2004.
- 김영지, 「목련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홍우, 「한국목련극지옥형상」, 『정토학연구』 4, 2001.
- 김홍우, 「우란분재의 연극 연희화 방안」, 『연극교육연구』 1, 1997.
- 문성재, 「중국의 종교극 목련회」, 『인문학연구』 8, 2001.
- 신은연, 「1930년대 불교회극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연제영, 「감로탱화의 조성배경과 천도대상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 2003.
- 연제영, 「한국 수륙재의 의례와 설행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오출세, 「불교의례를 통해 본 민속신앙」, 『월운스님 고회기념 불교학논총』, 동국역경원, 1998.
- 오출세, 「세시풍속에 미친 불교민속」, 『불교문화연구』 5, 2005.
- 오현화, 「불교축제로서의 우란분재」, 『어문학교육』 24, 2002.
-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한국민속학』 25, 1993.
- 조성금, 「楡林19窟 <目連變文變相圖> 考察」, 『동악미술사학』 17, 2015.
- 장춘석, 「우란분재의 연원과 전승 양상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20, 2009.
- 전경옥, 「감로탕에 묘사된 전통연희와 유랑예인집단」, 『공연문화연구』 20, 2010.
- 전경옥, 「티베트 가면극의 역사와 연희양상」,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2011.
- 차차석, 「불교 조상의례의 사상적 특징과 전개」, 『한국종교학회』 69, 2012.
- 홍태한, 「수륙재 <하단> 에 보이는 죽음 형상의 보편성」, 『남도민속연구』 24, 2012.
- 陳洪, 「盂蘭盆會起源及有關問題新探」, 『佛學研究』, 1999.
- 陸永峰, 「目連与盂蘭盆節」, 『百科知識』, 2012.
- 楊思民, 「論中元節的形成, 發展及文化价值」, 『貴州文史叢刊』, 1991年02期.
- 李政昕, 「目連之母形象的演變及文化解讀」, 華僑大學 中國語言文學 碩士學位論文, 2012.
- 張弓, 「中古盂蘭盆節的民族化衍變」, 『歷史研究』, 1991年01期.
- 曾永義, 「地方戲曲與宗教之關係—以儺戲寺廟劇場爲論述內容」, 『동아시아문화연구』 51, 2012.



4. 웹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中華電子佛典協會 <http://www.cbeta.org>





ABSTRACT

Historical Development and Performing Aspect of
Wu-ran-bun-jae(Ullambana) of Korea and China

Choe, Yoojin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Wu-ran-bun-jae(hereafter *Ullambana*) is one of the most popular Buddhist rituals and festivals in East Asian tradition. The *Ullambana* is held annually on the 15th day of the seventh month in lunar calendar to release souls of departed ancestors from purgatory. In the *Ullambana Sutra*, the Buddha instructs his disciple Mok-ryeon(sk. *Maudgalyāyana*) on how to obtain liberation for his mother, who had been reborn into a lower realm, by making offerings to the *sangha* on the 15 day of the seventh month, which is also the day of *pravarana*, a ceremony performed on the last day of three-month-long summer retreat. While there are different theories on the origin of the *Ullambana*, this article extrapolated the Indian origination before the Buddhism spread to the East Asia.

Based on the historical texts, almanacs, newspapers, magazines, and anthologies, Chapter 2 illustrated the history of *Ullambana* in Korea and China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day. *Ullambana* was established in



China in sixth to seventh centuries and it was transmitted in folklore culture to later period of Tang, Song, Yuan, Ming and Qing. The earliest extant document showing that the *Ullambana* was held in Korea is from Goryeo dynasty, however, this article addresses that there is possibility of *Ullambana* in Three Kingdoms period inciting Japanese historical texts. The *Ullambana* was flourished in palaces and Buddhist temples in Goryeo. It was relatively weakened in Joseon dynasty, but it was still popular among ordinary people and was held in temples. Up to the modern day, the *Ullambana* has been flexibly changed according to the need of the period.

During the *Ullambana*, there was not only the food offerings, but also the performances. Mok-ryeon drama (ch. Mulianxi) was widespread after Song in China. In Korea, the earliest extant example of Mok-ryeon drama is from Japanese colonial era. Instead, there was Mok-ryeon opera (ko. Mok-ryeon-gang) tradition, which is in similar form of *pansori*, in Goryeo, Korea. In Chapter 4, this article concluded that a form of performance must have been held in Joseon as the tradition of performing arts in the *Ullambana* was transmitted from Goryeo to modern day in Korea.

